



#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0. **05+06**

등록 제99호 (비영리) · 등록번호 서울 바 03200 발행일 2010년 5월 1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장영달 TEL 02-2203-3500(KHDI)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에드 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박청수 원불교 원로교무

## 무소유의 삶 실천하는 빈자의 어머니 마녀 박청수가 전하는 나눔 이야기

머릿글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5·6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김원중 건양대학교 교수

- 이만의 한경부 장관

세상을 보는 눈 김승래 창조경영아카데미 소장

Special Focus 정운찬 국무총리

최윤규의 무비노믹스

테마경영 김재우 기업혁신연구소 회장

발행인 편지

회원&연구원소식

명사초청특강 윤생진 창조경영연구소 대표

Membership Day

정목일칼럼

# 세계적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 저자 말콤 글래드웰 최신작!

출간 즉시 전 세계 리딩 언론에서 쏟아진 찬사와 추천의 메시지! 말콤 글래드웰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명이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장대한 논픽션을 엮어내는 그에게서 '좋은 작가란 무엇인가'를 배운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 말콤 글래드웰은 논픽션 글쓰기의 광대한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다. <뉴욕타임스> ★ 누구도 말콤 글래드웰처럼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볼티모어선> ★ 수많은 팔을 가진 힌두교의 전지전능한 신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온다. <타임> ★ 그가 보는 곳이 바로 지식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다. <시카고선타임스> ★ 말콤 글래드웰은 '미치도록 새로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되었다. <뉴욕매거진>

#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참을 수 없이 궁금한 마음의 미스터리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 WHAT THE DOG SAW

뉴욕타임스 24주  
연속 베스트셀러!

★★★★★

아마존 논픽션  
베스트셀러!



##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 우주에는 이야기가 있다!

왕성한 호기심과 독창적 통찰을 바탕으로 손대는 주제마다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발표하는 책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지식혁명가이자 논픽션 분야의 독보적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이 15년 동안 집필한 수백 건의 아티클.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직접 골라 뽑은 19개의 흥미로운 지식 앤솔러지!

# 한국 CEO의 ‘메가쇼크 텐(Mega Shock 10)’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 과연 한국은 큰 나라인가, 작은 나라인가? 강 한 나라인가 아니면 약한 나라인가? 강국인지 아닌지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근거한다. 한국의 GDP는 약 1조 달러, 세계 13위 국가다. 군사력도 만만찮다. 5~60만 대군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CIA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약 210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세계 8위 군사비지출 강국이다. 그래서 세계 220여 개국 중 한국은 상위 10% 이내에 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강국이다. 대국이나 아니냐는 인구수와 국토크기에 따른다. 한국의 인구 5,000만 명은 대략 24등 안팎이다. 거기다 북한의 2,000만 명을 합치면 세계 16등 안팎이다. 세계민족 3000여 족 중에서 한(韓)족은 거의 10등 이내에 해당한다. 새삼 놀랍다. 하지만 국토 크기는 보잘 것 없다. 한국은 99,500 km<sup>2</sup>로 106위 정도다. 남북한 합쳐봐야 222,500km<sup>2</sup>로 81위쯤 한다. 그러나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21세기에 국토의 크기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거절할 수 없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한국은 사방의 눈치를 봐 가면서 살아야 하나? 이유는 간단하다.

## 한반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VIP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크고 강한 네 나라인 초강대국 사이에 끼여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패권을 겨누고 있다. 거기에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나서 으르렁거리는 형국이다. 만약 한국이 아프리카 북반쯤 위치하고 있다면 지금의 국력가지고도 땡땡거리면서 눈알을 굴리

며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엄연한 사실은 ‘반도 국가’일 뿐이다. 반도국가는 교량국가다. 다리 역할이 그 본질이다. 여기에 도전과 고통, 그리고 기회가 다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북쪽 다리는 왕창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남쪽은 기적의 철강다리이지만 어두운 구석이 아직도 많은 다리다. 통계에 잡히는 세계 54개 나라 중 투명성은 하위에 속한다. 국민행복지수는 68위, GDP 대비 지하경제비율은 세계 4위, 자살률은 1위를 하는 아직도 겸손해야 할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은 나라와 기업과 한국인 모두의 과제다. 여하간 한국은 세계의 이목이 여러모로 집중되는 역동적인 나라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반도, VIP(Very Important Peninsula)’다. 한반도의 한국은 강하고 중간쯤 하는 강중국(強中國)이다. 아니다. 강하고 중요한 나라, 강중국(強重國)이다. ‘매우 중요한 반도, VIP’ 중 ‘매우 중요한 사람, VIP(Very Important Person)’가 CEO(Chief Executive Officer)다.

## VIP 중 VIP는 바로 CEO

CEO는 가치를 생산하는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CEO는 짐이 매우 무겁다. CEO는 10가지 메가쇼크(Mega Shock)를 극복하면서 기회와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가롭다. 그래서 메가쇼크 텐이다. 첫째, 세계화쇼크다. 탈냉전, 국경의 붕괴, 무한경쟁, 글로벌 스탠다드, 펀드자본주의, 투명경영 등 세계화하면 생각나는 숨 가쁜 키워드들이다. 둘째, 민주화쇼크다. 소유와 경영, 그리고 노조와

의 조화가 과제로 등장했다. 셋째, 하이테크(Hi-Tech)쇼크다. IT,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환경테크, 우주항공테크, 문화테크의 융복합에서 승리해야 한다. 넷째, 친디아(Chindia)쇼크다. 중국은 세계의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도 달리고 있다. 다섯째, 환경쇼크다. 이 속에 기회와 도전이 함께 있다. 여섯째, 저출산·고령화쇼크를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여풍쇼크(Woman Power Shock). 여성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 여덟째, 원자재쇼크다. 블랙 골드(Black Gold)인 석유 뿐만 아니라 블루 골드(Blue Gold)인 물 자원 경영에 미래가 있다. 아홉째, 북핵·테러쇼크다. 김선일 테러사건과 북핵 문제는 당면과제다. 열 번째, 부동산쇼크가 한국에는 늘 존재한다. 한국인 모두의 지혜와 협조가 요구된다. **▶▶▶**



### 이해익 대표 ●

1945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유원 건설 감사실장, 진로그룹 이사, 캠브리지 총괄전무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의 공기업 평가위원회 위원 및 총괄 반 대표로 활동했으며,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초대 기업평가위원장으로 ‘경제정의 기업상’을 제정 시행해오는데 기여해왔다. 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CEO그랑프리’를 실시하고 있다. CEO칼럼니스트로서 여러 매체에 칼럼 연재도 하고 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 5월

매주 목요일 | 07:00~09:00

##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제1644회 5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성호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되돌아보는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의 실패로 인해 때로는 한숨짓고 탄식을 내뿜는다.

삶은 관계이다. 삶은 누구에게나 관계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관계가 곧 인간의 삶을 이루는 실체이다. 즐겁고 행복한 삶,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생각하고 모든 것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관계적 사고력은 사물 혹은 인간간의 연관성이나 상호작용을 파악해서 분석, 판단, 비교, 평가하는 사고행위를 뜻한다. 특히, 관계적 사고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네트워킹 시대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계 100대 최고 교육학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이성호 교수를 초빙하여 나와 내가 아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관계에 있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생각과 행동에서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 연세대 대학원 졸업 |  
美 조지워싱턴대 교육학 박사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일반대학원장, 행정대외부총장, 총동문회 부회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평가위원장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대통령자문 제2의 건국  
법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상훈) 세계 100대 최고 교육학자 선정(영국 국제인물전기센터),  
홍조근정훈장 외  
저서)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지, 교육과정론,  
Korean Higher Education 외

## 호암 이병철 회장과

##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배우는 교훈

제1645회 5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손병두 KBS 이사장

최근 현대사에 굵은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에 대한 기념행사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과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 행사가 그렇다.

물론 한 개인의 탄생 100주년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호암의 경우 인재제일과 사업보국을 축으로 하는 철학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업경영 이념으로서 영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만큼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다. 한국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를 넘어 고인이 보여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 행사였기에 의미가 깊었다. 그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김 추기경의 안구기증을 뒤따르는 장기기증 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했던 추기경의 뜻을 잇는 '바보의 나눔'재단도 출범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오늘날의 삼성그룹을 있게 한 호암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손병두 KBS 이사장을 초빙하여 이병철 회장과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교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한양대 경영학 박사 |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장, 이사 |  
제일제당(주) 기획, 홍보, 마케팅, 지역관리담당 이사  
| 전경련 상근부회장, 국제산업협력재단 이사장, 국제  
경영원(IMI) 원장 | 가톨릭경제인회 부회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 서강대 총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삼성고른기회정책재단 이사장

상훈) 데일카네기 리더십상, 동탑산업훈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상,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신한국인상 외  
저서) 경제상식의 허와 실(편), 시민이 고객 되는 지방경영(공), 의욕적인 사람으로 만  
들어 주는 101가지 방법(역), 뉴밀레니엄 생존전략 - IMF 파고를 넘고 외

## 포스코 3.0시대의 성공스토리

제1646회 5월 2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종태 포스코 사장

최근에 불어 닥친 변화의 화두는 '비즈니스 3.0'이다. '분업과 표준'의 시기 1.0, '진보와 혁신'의 2.0시대를 넘어 이제는 '창조와 혁명'의 시기 비즈니스 3.0이 도래했다. 구글과 애플 등을 선두로 경영에 창의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하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3.0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불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스코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세계 철강업계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1968년 창립된 포스코(포항 제철)는 현재 2800만 톤 규모의 조강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회사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민영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포스코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서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고객 없는 포스코는 있을 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 Win-Win경영방침으로 자사의 성공 및 고객의 성공을 약속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봉사 와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캠페인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포스코 사장에 취임한 최종태 사장을 초빙하여 포스코의 역사와 함께 오늘날 포스코의 성공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 중앙대 문헌정보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 포항종합제철 인사실장, 교육  
부장, 경영기획실장 | 포항종합제철 인재개발원장 |  
2002년 포항종합제철이 포스코(POSCO)로  
사명변경 | 포스코 인사, 노무, 교육담당 상무 |  
포스코 인사, 노무, 총무, 구매담당 전무 |  
포스코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 제12대 전국연수원  
장연합회 회장 | 한국산업교육학회 회장 |  
한국HRD학회 연합회 회장

상훈> 대통령 은탑산업훈장(중소기업상생협력)

## 카리스마 세일즈 화법

제1647회 5월 27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김효석 공주영성대학 교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 가족, 친구와의 편한 대화에서부터 비즈니스 회의, 그리고 영업에서 고객설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김효석 교수는 가난했던 대학시절 소화가 방문판매로 세일즈의 길에 들어섰다.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그는 영업과 방송에서 갈등하다 첫 직장으로 보험회사에 입사하면서 영업을 배우고 설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아나운서를 하면서 말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쇼 호스트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었다.

김 교수는 입사 3개월 만에 최초로 프로그램 당 10억 매출의 벽을 깨고 일약 스타로 등극하며 매년 매출기록을 갈아 치웠다. 2002년에는 1,360억의 매출달성 3년 연속 최고액, 최다방송, 최고달성률, 3관왕 수상 등 세일즈의 달인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카리스마 화법은 딱딱하고 무섭고 위압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효석 교수를 초빙하여 어떤 고객을 만나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비결과 요령을 그의 사례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균관대 회계학과 졸업 | 중앙대 PR전공 석사  
홍익대 언론홍보 박사과정 | 평화방송국 아나운서  
CJ홈쇼핑 호스트팀장 | SBS '김국진 박수홍의 코치'  
11대 코치 | (사)한국강사협회 상임이사 |  
김효석에듀컨설팅 원장 |  
공주영성대학 쇼핑호스트과 교수

상훈>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표창, (사)한국강사협회 명강사 위촉-79호  
저서) 쇼호스트 입문, 세일즈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 카리스마 세일즈화술,  
중급 쇼호스트 프레젠테이션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 6월

매주 목요일 | 07:00~09:00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더불어 사는 기업의 희망

제1648회 6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2012년 해외 프로젝트가 많은 전자업체 A사. 어느 날 해외 바이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글로벌 ISO 26000의 검증 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2010년 코펜하겐에서 ISO 26000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졌다. 하지만 2년 후, 이런 해외 움직임은 전자업계 전반으로 번져갔고, 결국 2년 만에 모든 수출길이 막혀 버렸다.

A사의 가상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리콜사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ISO 26000은 기업, 정부, 소비자, 노동자 등 모든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물이다. 향후 국내기업에 수출 길을 막을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CSR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력 향상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59%가 ISO 26000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CSR표준화포럼 회장이자, 유한대학의 김영호 총장을 초빙하여 ISO 26000의 재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처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 日 오사카시립대 경제학 박사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경상대학 학장 | 日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 | 日 도쿄대 교수 | 中 길림대, 베이징대  
객원교수 |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 대구리운드  
한국위원회 위원장 | 산업자원부 장관 | 국제보상운동  
기업사업회 회장 | 한국CSR표준화포럼 회장 |  
국제아세아공동체학회 공동대표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상훈) 다산경제학상, 국민훈장 모란장, 청룡 보국훈장

저서) 동아시아 공업화와 세계지분주의,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의2001년 설계 차

## 100년을 이어간 브랜드의 전설

### -할리데이비슨의 마케팅과 경영철학

제1649회 6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계웅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사장

남자의 로망을 상징하는 제품, 할리데이비슨은 소비자가 몸에 고로문신을 새길 정도의 러브마크로 유명하다. 어떻게 할리는 그런 러브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브랜드란 기업의 약속과 소비자의 기대가 만나는 접점이다. 그리고 그 접점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러브마크가 되는 것이다. 할리데이비슨은 판매전에 고객에게 쓰는 홍보비보다 물건을 팔고 난 후에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한다. 소비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모터사이클이 아닌 꿈과 로망을 파는 회사 할리데이비슨의 고집스러우면서도 독특한 경영철학이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이계웅 사장은 취미라고 보기엔 너무 고생스러운 철인3층 경기를 5번이나 완주, 엄청난 끈기와 도전정신의 스포츠 마니아로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어버렸다. 운송수단으로써의 모터사이클만 존재하던 한국에서는 시장개척이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1999년 4월 창립이후 성공적으로 한국스타일의 모터사이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계웅 사장을 모시고, 105년의 역사동안 세계경제의 흐름을 그대로 느끼고 살아남은 브랜드의 강자, 할리데이비슨이 어떤 마케팅과 경영철학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는지 그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외국어대 졸업  
국회사무처 전속 통역  
육군사관학교 교관  
㈜대우 섬유사업부, 해외사업팀 멕시코법인 근무  
1999년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설립  
미국상공회의소 자동차 분과위원회 공동의장  
KMIA(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 공동의장

## 세계적 대가들이 말하는 성공의 3가지 道

제1650회 6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이 지 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많은 대가들은 지금을 '영원한 위기의 시대'라고 경고한다. '혼·창·통'은 기업과 개인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키워드이다. 프리미엄 경제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인 이지훈 박사는 세계 초일류기업의 CEO, 경제경영석학들을 인터뷰하면서 '격동의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를 물었고, 그 답은 '혼·창·통', 세 가지 키워드로 모아졌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혼),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새로워지려는 노력(창),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점령이라고 해서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에서도 조직이든 개인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광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바로 '기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혼·창·통'이 설파하고 있는 정신이다. 역사상 선도적인 발자취를 남긴 모든 성공자와 성취자들은 '혼·창·통', 세 가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조선일보 '위클리비즈'의 이지훈 편집장을 초빙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든 조직과 개인이 삶과 비즈니스에 있어 어떻게 명확하고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기발한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조직 안팎을 비롯해 모든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한양대 경제학 박사  
조선일보 경제부 금융팀장  
조선일보 경제부 증권팀장  
저서) 혼창통

## | 6.25 기념강연 |

### 북한을 보는 우리의 자세

제1651회 6월 24일(목)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김 신 조 베뢰아 아카데미 하우스 관장

6월은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달로써 나라사랑의 달이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바람직한 국가관을 갖는 것에 의외로 무관심하고 소홀해지고 있는 듯 하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 특수부대로서 남파됐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신조, 이후 목사로 변신한 그는 이제는 대북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45년 해방 당시 4세였고, 6.25 때는 9세, 지금은 69세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며 민족의 비극을 양쪽 진영에서 체험한 인물이다.

김 목사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으로 바뀐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본다. 남한 사회가 민족, 동포, 평화통일이라는 감성에 빠져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마저 허무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 감행 등으로 안보 불안을 극대화했다. 이에 김 목사는 북한 주민들의 깊게 박힌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꾸려면 조금 늦더라도 긴 시간을 갖고 대북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공산치하에서는 유물론적 공산주의자였다가 자유진영에서는 구령의 열정으로 양육하는 목사로 거듭난 김신조 목사를 초빙하여 남한에 살면서 느낀 자유의 소중함과 그동안 아껴두었던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함경북도 청진 출생  
북한 무력부 124군 부대  
1968년 31명 무장 특공대 청와대 습격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서울침례신학교 졸업 | 서울침례 신학연구원 졸업  
1997년 목사 안수

제163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사기열전, 인물로 본 인재경영

**김원중** 건양대 중문과 교수/한국중국문화학회 부회장

• 3월 25일(목)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인재가 많은 조직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직의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래를 잘 내려다보고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의 리더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들이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마인드와

접목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재가 조직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기열전〉에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인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화장실에서 오줌을 받아먹는 굴욕을 당했지만 진나라의 재상이 된 범저, 동양의 마키아벨리로 불리지만 진시황에 대한 유세(遊說)에 실패해 독배를 든 한비,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동원해 변법을 완성했지만 정작 그 법을 지킨 여관 주인의 신고로 죽은 상앙, 초나라 제후에게 도둑으로 몰려 죽도록 맞고도 '내 혀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했던 장의 등'이 그들이다.

###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든 진(秦)나라

춘추시대(BC 770~403)를 이은 전국시대(BC 403~221)의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뤘던 7개의 제후국을 '전국 7웅'이라고 한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한 주체는 당시 영토가 가장 넓었던 초(楚)나라도, 가장 비옥한 땅을 가졌던 제(齊)나라도 아니었다. 오히려 서쪽 구석의 가장 척박한 땅에 있던 진(秦)나라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리더의 포용력과 더불어 뛰어난 인재의 결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초의 장의와 이사, 위(魏)의 상앙과 범저, 한(韓)의 한비 등 유능한 인재가 모두 조국을 버리고 진으로 왔다.

진나라가 천하의 인재들을 몰려오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산고망원(山高望遠)', 산이 높으면 그만큼 보이는 것도 멀다는 뜻이다. 인재가 많은 조직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직의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래를 잘 내려다보고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초나라 출신 이사는 허급 관리 시절 두 마리 쥐를 보고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배웠다. 창고에 사는 쥐는 느긋하게 쌀을 먹다가 사람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지만 시궁창에 사는 쥐는 먹다 버린 음식물을 몰래 먹으면서도 사람만 보면 놀라 도망쳤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사는 초나라는 시궁창의 쥐와 같다. 창고 속의 쥐처럼 살려면 진나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나라로 가서 성공하게 된다. 어디에 몸을 두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진시황을 폭군으로 분석한 유(熒書坑)에 대해 비난하지만 사실 그가 생각한 마인드의 차이는 대단한 일이었다. 당시 문자통일을 생각한 것은 물론 이사가 안을 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리더였다. 조직의 리더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들이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마인드와 접목하느냐가 중요하다.

### 산고망원(山高望遠)과 토사구팽(兔死狗烹)의 교훈

이사는 자신의 출신과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다. 창고 속의 쥐와 시궁창 속의 쥐를 이사만 봤을까.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인재의 특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이다. 그 역량과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 결국 인재는 크게 되어 있다. 어떤 조직에서는 인재가 클 수 있고, 어떤 조직에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진시황은 이사의 '인재개방론'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연고를 벗어난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진시황의 마인드는 성과주의, 결과론주의였다. 전쟁에서도 장수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앞세워 아랫사람들에게 상을 주자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

그러나 이사가 진나라에 갔을 때 자신을 쫓아내려는 기득권 토착세력의 방해가 심했다. 특히 그들은 이사가 첩자일 수 있다며 그를 쫓아낼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사는 토착세력들의 방해로 일거에 잠재우고 객의 위치에서 재상까지 올랐다.

당시 이사는 〈간촉객서(揅逐客書)〉에서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 하해불탄(河海不擇細流)'이라고 설파했다. 태산은 한줌의 흙도 버리지 않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재를 받아들여야만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그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는 진시황이 고민했던 개혁을 밀 받침한 2인자로서 문자, 화폐, 도량형, 군현제 실시 등 각종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나서 호해와 조고의 간계에 넘어가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그는 진시황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2세 황제에게도 은혜를 입어 대를 누려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러나야 할 때에 '깍'이 주인행세를 너무 오래한 꼴로 만용을 부린 것이다. 자신을 받쳐주는 강력한 후원자가 없을 때는 조용히 다른 각도에서 처신할 줄도 알아야 한다.

소하, 장량과 함께 한 고조 유방의 3인방 측근으로 불렸던 한신 또한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해 몰락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한신은 밥을 빌어먹을 정도로 겁쟁이였는데, 소하의 추천을 받아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다. 소하는 “폐하가 한중의 왕으로 만족할 생각이라면 한신이 없어도 되겠지만 천하를 도모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한신이 있어야 한다”고 유방을 설득했다. 대장군에 임명된 한신은 엄청난 공을 세웠고, 한나라는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신은 초심을 잃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다가 패망을 자초했다. 유방이 정권을 잡고

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한신은 제나라 왕으로 봉해달라고 청했을 만큼 욕심이 많았다. 하지만 소하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며 유방이 선물한 큰 재물을 모두 반납했다. 장량 역시 만년에는 도인술, 양생술을 배우며 조용히 살았다. 그때부터 유방은 이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신이 죽음을 앞두고 한 유명한 말이 ‘토사구팽(兔死狗烹)’이다. 사냥개가 토끼를 잡고나면 그 개는 버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신은 모반을 계획했다. 아무리 지모가 뛰어나도 적이 없으면 효용가치가 사라진다. 그 때는 조용히 은둔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색해야 하건만 한신은 계속 앞만 보고 갔다. 때로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물러나 관망해보는 것이 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하와 장량은 그것을 알았고, 한신과 이사는 그것을 몰랐다.

###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

‘멈춤의 지혜’와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협력의 지혜’이다. 조나라의 인상여와 염파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당시 강대국인 진나라의 소왕은 조나라가 가지고 있던 보물 ‘화씨의 벽(和氏之璧)’을 얻기 위해 빼앗은 15개의 성을 돌려줄 테니 화씨의 벽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 때 조나라에는 염파와 인상여가 있었다. 인상여는 자청해서 진나라로 가 소왕 앞에서 뛰어난 외교술을 발휘해 보물을 지켜내고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자 대장군인 염파는 “세 치 혀만 놀렸을 뿐인데, 나보다 출세했다”며 인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모욕을 주리라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인상여는 계속 염파와 대면하는 것을 피했다. 주변에서 '왜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피하느냐고 묻자 인상여는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염파와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염파는 인상여를 찾아가 잘못을 빌었고, 두 사람은 목이 잘려도 변치 않는 우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나온 고사성어가 '문경지교(刎頸之交)'이다. 이처럼 한 명의 인물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다.

범저 역시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그는 위나라 왕을 섬기다가 제나라 양왕에게 선물 받은 것을 위나라 공자에게 들켜 첩자로 몰린 후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명석에 말아져 측간에 버려졌다. 때마침 연회를 하던 사람들이 명석에 오줌을 싼고, 그것을 받아먹은 범저는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게 되었고, 이름을 장록으로 바꾸어 숨어 살다가 진나라로 가서 재상이 되었다. 승승장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범저에게 친구 채택은 '여기서 멈추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것이네'라며 충고했다. 그 말에 친구를 나무랐던 범저는 '달도 차면 기울기 미련이고, 정상에 도달하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러날 때를 알았던 것이다.

### 리더는 인재를 끌어안는 포용력 가져야

연나라 태자 단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낭만적 자객' 형기를 보냈다. 그러나 형기는 자객의 기본 기술인 자술(찌르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고, 싸움에도 능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진시황은 항상 암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1만 명이 동시에 앓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아방궁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결국 암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진시황은 자신을 죽이려던 배후에 태자 단이 있었음을 알고 연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켜 버렸다. 태자 단의 성급한 암살시도가 연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진나라는 당시 연나라를 공격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태자 단의 무모한 시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공격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실력자 맹상군은 인재발굴에



열성적이었다. 그의 문하에는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이 두 사람을賓객으로 대우했고, 사람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런데 맹상군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됐을 때 정작 그를 살려낸 것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진나라 궁중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왔고, 또 한 사람은 닭 울음소리로 첩통같은 함곡관 성문을 열었다. 이 계명구도(鷄鳴狗盜)의 고사는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요긴하게 쓸모가 있다는 교훈을 준다.

중요한 것은 포용력이다. 성공할수록 아랫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말한 것이 법이 되어야 하고, 아랫사람들이 무조건 듣기를 바란다. 공자는 60세, 이순(耳順)부터는 귀를 순하게 하라고 했다. 귀에 거슬리는 말, 비판과 조언을 들으라는 것이다.

인재는 굴욕과 치욕을 견뎌내고 멈춤의 지혜를 터득했을 때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토양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몫이다. 인재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부르는 포용력이 더욱 중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인재가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고사에 나오는 관중은 화살을 쏘아 제나라 환공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화살이 환공의 현대에 맞는 바람에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 얼마 후 환공에게 포숙아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관중을 새로운 책사로 추천했다. 환공은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 포숙아의 간청을 받아들여 정적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발휘했다.

역사의 승자와 패자는 인재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로 구분된다. 다만 그것이 '현군(賢君)과 현신(賢臣)의 행복한 만남'으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성공을 원하는 리더라면 인재가 조직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리더의 포용력과 참모의 헌신성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 **김기현**



제164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방향

**이만의** 환경부 장관

• 4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오늘날 환경정책의 핵심은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3가지를 융합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보지 않으면 환경정책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은 이제 글로벌 키워드가 되었다.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가 운용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녹색경제의 개념은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이 환경을 강화 또는 보강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한 녹색성장

우리는 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녹색성장을 주장하게 되었을까?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색성장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공급의 불균형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면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이제는 에너지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외 의존도의 심화다. 이 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판이 필요해졌다.

넷째, 에너지 소비가 화석연료 중심 구조로 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결국 녹색성장으로 국가의 큰 비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장 주요한 환경정책이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이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덜 쓰느냐 하는 문제로 2020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다이어트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상업, 건물, 교통부문 등 모두가 추진하되 자율적 자발적 혁신이 결국 21세기 글로벌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

###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간, 국가간 협상을 통해 무거운 책임 대신 가벼운 책임을,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저감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소재 개발, 공정 혁신, 리사이클링 촉진,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비즈니스의 생존전략으로써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도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수변구역에 에너지 수증을 식재하는 등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먹는 물 문제도 중요해짐에 따라 상하수도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내는 것과 물 서비스 시스템을 광역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물 재이용 및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물 재이용산업, 크게 보면 대체용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녹색성장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한국에 더 큰 위기

4대강 물 문제와 기후변화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여부에 논란이 많다. 물 부족 국가이면 4대강 사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호우, 폭우, 태풍, 가뭄이 다가올 것이다. 이미 중국 중서부지방에 오랜 가뭄으로 인해 이재민이 5천만 명을 넘었다. 2004~2005년 당시 유럽에 흑서기가 닥쳐 프랑스에서는 이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 1만 2천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지금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현상이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강수량이 세계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 홍수 때와 가뭄 때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한국은 168인데, 영국은 8이다. 그래서 1~4월 갈수기 때는 연평균에 비해 수질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낙동강이나 영산강의 경우는 평소에도 수질이 좋지 않지만 갈수기 때는 더욱 심각해진다.

녹조도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농민들이 쓰는 질소, 인산, 가리 등의 비료에 들어있는 인(P) 성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에 들어있는 총 인의 양이 국제표준보다 훨씬 높고, 갈수기 때는 녹조가 우려되는 선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강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물은 많이 있을수록 좋고 수질이 좋아야 하지만 언제나 건강해서 그 안에서 동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수생태 또한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생태의 건강성이 떨어지고 있다. 2008년 환

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부착조류 34% 불량, 어류 40% 불량, 저서생물 11%가 불량으로 조사되었다. 낙동강의 경우는 부착조류 11%, 어류 3%, 저서생물 40%, 수변서식환경 27%만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기후변화를 맞고 있는 정도에 비해 한국은 그 배의 속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막는 한편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생활환경, 자연환경이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

#### 생명력이 흐르는 4대강 창출

그럼 어떻게 물을 확보할 것인가. 16개의 보를 4대강에 설치하게 된다. 그 중 절반은 비중이 큰 낙동강에 설치한다. 16개의 보를 설치하면 8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농사용 저수지의 제방을 높여서 담수율을 높이면 2억 5천만 톤의 물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낙동강에 강의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용도의 댐 2개를 더 확보하면 2억 5천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막는 방법은 하천 바닥을 파내면 된다. 홍수 때 토사가 쌓이고 싸여서 원래의 바닥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만에 걸려있는 곳을 파낸다는 것이다. 일부에는 이를 두고 파괴라고 하지만 비만에 걸려있는 하천을 방치하는 것이 자연보호인지, 건강을 회복시킨 다음에 관리해주는 게 자연보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바닥을 파고 보를

만들면 물의 양이 늘어나서 제방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도 함께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는 물은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 수질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최소한 2급수 이내의 물을 배출해서 강보다 좋은 물을 들여보내려고 한다. 예전에는 없었던 인 처리시설을 4대 강변에 설치해서 인을 밖에서 처리함으로써 강물이 썩는 걸 막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동물 서식지를 만들어 물고기의 번식을 돕고, 어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시설 등 생태프로그램도 만들게 된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토목기술이 적용되어 원하는 만큼 물을 뺄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이것을 다기 능보, 가동보라고 부른다. 홍수가 나면 물을 다 빼기 위해 강바닥까지 완전히 낮춰서 운용하고, 가물 때는 직각으로 세워서 물을 가두게 된다. 홍수로 바닥에 쓰레기가 쌓이면 밀바닥을 들어 올려서 물을 빼기도 한다. 기존의 댐들이 밀바닥의 물을 못 빼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 4대강 살리기로

##### 기후변화 대비와 녹색성장 견인

일부에서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류에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둬서 하류에서 물이 필요할 때 가둬 놓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줌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물을 모아놓더라도 유입되는 물이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고이면 썩는다’는 실험실의 논리와 현장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2012년 생태회복사업까지 마치면 수영을 해도 좋을 물의 비중이 86%까지 올라간다. 86%라는 것은 전체 강의 구간 구간을 볼 때 적어도 86%의 구간은 아주 좋은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뜻이다.

공사 중 오염으로 강을 버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파이프를 하천에 집어넣고 강한 흡인력을 통해서 쓰레기 내지는 모래를 빨아들이는 흡입식 준설을 통해서 흙탕물을 막는다. 그렇지 않은 곳은 장비를 동원해서 하되 탁한 물을 걸러낼 수 있는 막을 2중으로 설치해서 하천, 특히 먹는 물을 취수하는 곳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 준설 시 물의 탁도는 홍수가 났을 때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홍수가 날 때도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 정도의 탁도는 아무 걱정이 없는 수준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유엔기구로서 대한민국의 주장, 투자에 의해서 서울에 금년도 상반기 중 발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녹색성장을 계기로 이 정부가 하나의 유엔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세계의 경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 인사나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다이나믹한 것은 좋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길을 내고 가야할 때는 분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역사적 의미가 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재**



# 상상·창의·창조 창조경영

김승래 창조경영아카데미 소장



## 상상과 창의 ●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제25회 하계올림픽 개막식의 성화점화 장면을 기억하는가? 이전의 성화주자들이 직접 성화대에 점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서 점화했다. 이를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전의 어떤 올림픽 성화점화보다도 참신했다는 찬사와 함께 '역시 바르셀로나는 창의의 도시야!'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 같은 상상력의 거장들이 활동했었던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 불화살을 통한 성화점화 장면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로부터 4년 전 우리의 서울올림픽 점화 장면은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왜 서울올림픽에서는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앞섰던 민족이었던가? 구텐베르크보다도 200년이나 앞섰던 금속활자, 1400년대에 이미 신기전이란 세계 최초의 다연장방사포를 실전에서 사용했고, 창의적인 한글, 해시계, 물시계 등 참으로 우월한 상상력의 산물들이 많았던 민족이다.

문제는 바로 상상력의 차이다. 당시 전반적인 사회문화가 상상을 맘껏 하지 못하게 하는, 그로 인해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풍부했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상상력(想像力)은 창의와 창조의 출발이며 필수조건이다.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생각해주는 지적 능력'으로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도 중요하며, 지금 우리는 혜택은 언젠가 누군가가 상상했던 것'이라고 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생한다. 창의(創意)의 사전적 의미

는 '처음으로 만드는 것, 새로운 착상이나 의견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끌어내고 새로 조합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수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創意=상상력x실천력'이다.

창의의 '創'자를 '倉(곳집-곡식 저장창고)+刀(칼)'의 합성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곳에 칼을 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바 우리가 그 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도 과감히 고치거나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조(創造)는 창의의 실천과 실행의 결과로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로써 '創造=창의x성과'로 표현할 수 있다. 창조경영은 나무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뿌리로부터 상상력이라는 자양분을 흡수하여 창의라는 줄기를 거쳐서 창조라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이다.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햇볕이 잘 들게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영이다.

## 창의성 경제시대 도래 ●

2007년 5월, 세계적인 경제지 비즈니스위크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는 지고 창의성 경제(Creativity Economy)가 뜬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창의성 경제란 '데이터와 정보, 지식기반에서 벗어나 인간이 가진 상상력에 비중을 두는 경제'라고 정의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터넷의 발달에 있다고 봤다. 지식경제가 담당했던 가격과 품질은 초고속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지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 '더 빨리 더 싸게 더 좋게' 전략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출발한 지식경제시대가 인터넷의 확산으로 그 중



nomi

### 김승래 소장

1960년 생으로 현대그룹 기획실 경영혁신팀장 및 현대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창조경영, 조직혁신 및 활성화,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우송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며, 「Wikimanagement」, 「네 꿈을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마라」(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말을 가지고 온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의 발달은 지식의 시간적, 공간적, 질적 격차를 상당히 없애거나 줄였다. 또한 정보화와 자동화로 인한 혁신소재의 감소로 질적인 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조직구성원들을 이끌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은 지식검색을 통해 남의 경험까지도 내 업무에 맞춤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창의력을 통한 획기적인 개선이 개인과 기업 및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창조경영의 실천 ●

개인의 창의성 발휘는 조직의 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수한 창의적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활용하고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1등 인재를 뽑아서 2등으로 활용하고 바보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촉진 요인도 되기도 하고, 억제 요인도 되기도 한다. 촉진 요인으로는 조직의 유연성(관례대로 해오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실패해도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준다,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한다, 창의와 연관된 교육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이 있다), 리더의 개방성(직원배려, 존중, 경험), 구성원의 다양성, 보상기준 등이다. 억제요인으로는 단기 업적주의, 리더의 권위주의, 조직의 경직성, 위계적 통제시스템 등이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창조전략 수립 방법론에서 창조경영의 범위를 리더십+전략(미션, 비전)+조직문화(생산, 마케팅, 서비스, 시스템 및 제도화)를 통한 가치창조라고 했다. 이를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면 창의창조기법+시스템 제도화+조직문화+창조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면 고객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전 활동영역, 이를테면 연구개발, 생산, 디자인, 마케팅, 인재육성, 지원 업무 등에 걸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창조경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창조적 혁신을 지향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창조경영에 적합한 새로운 역량, 경영시스템, 조직문화를 단시간에 갖추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은 분명하다.

창조경영이란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합수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뜻하는 'Company'는 'Com(함께)+Pan(뽕)'을 의미한다. 결국 기업이란 경영자와 사원이 합심 단결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이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매일 창의성을 키우는 연습이나 훈련을 할까? 이 질문에 열에 아홉은 아니라고 답한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 창의성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결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고,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 문제는 창의성에 최적의 순간은 없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개인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중요하다면, 바로 지금이 창조경영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김승래**

저는 내 자신의 삶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은 듣거나 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저는 한평생 TV드라마를 한편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고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았죠

내가 힘쓰는 일은 항상 의미 있고 결과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관심이 불필요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늘 삼가 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소유의 삶 실천하는 빈자의 어머니

마더 박청수가 전하는 나눔 이야기



사진 · 오경근 원장



바탐방을 방문한 박청수 원로교무

세계 곳곳에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마더 박'으로 통하는 박청수 원불교 원로교무. 1956년 19세에 출가해 원불교 교무가 된 뒤 50여 년간 55개국에서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1992년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 라다크의 마하보디 기숙학교, 1999년 카루나 자비병원, 2003년 캄보디아 바탐방 무료구제병원, 콩고 화산폭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진, 남미 태풍 등 세계 각지의 자연재해, 미얀마, 캄보디아 27개 마을 공동우물 만들기, 아프리카 15개국에 의약품 지원 등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세계의 빈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돈만 105억 원에 달한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 몹시 걱정이 되고 병이 나는 특이체질이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남을 돕는다는 그는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을 쓴다. 그리고 강연료와 저서 인세, 방송출연료 등 모든 수입을 내놓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2007년 1월 원불교 강남교당을 끝으로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봉사활동이 멈춘 것은 아니다. 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 일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는 호주원주민을 지원하는 등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어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는 박 원로교무를 만나 나눔과 봉사로 일관된 삶의 흔적을 되짚어 보고, 끝나지 않을 '완전연소'의 삶의 가치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 근황부터 좀 들려주시죠.**

박 원로교무 2007년 강남교당을 끝으로 은퇴하고 용인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4월 15일)까지는 전북 익산에서 원기 95년 대각개교절을 맞아 특별교리강좌가 나흘간 열렸어요. 여든이 넘는 선배 교무님들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용인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박물관에 천주교, 불교 관계자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료전시관에 30년 전 김수환 추기경님의 모습이나 법정 스님의 인연이 담긴 자료들을 촬영해 가느라고 오는 거죠. 얼마 전에는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시어 조선일보에 스님에 대한 추모의 글을 쓰기도 했고,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한센병 환자 복지시설인 성 라자로 마을을 돕기 시작해 31년 동안 종교의 벽을 허물고 그들의 공동생일잔치를 베풀었고, 법정 스님과도 19년 동안 인연을 맺고 꾸준히 관계를 지속해왔어요. 종교간 지도자들끼리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이웃 종교와 협력한다는 것은 종교화합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간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현재 국내외에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 원로교무 캄보디아는 22년째 돕고 있는데, 바탐방에 2003년 개원한 무료 구제병원은 최지운, 김경선 두 후배 교무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매월 1300여 명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죠. 그동안 무료 진료를 받은 환자만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곳엔 오인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호암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2억 원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조의금 1억 5천만 원 등 3억 5천만 원을 청수나눔실천회 자선재단 기금으로 적립했어요. 캄보디아 구제병원 사업에 뜻있는 분들의 도움도 크지만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무료 구제병원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기금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부터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빈민지역에서 0~3세 어린이 60여 명을 하루 11시간 동안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부모가 일터



에서 일하는 동안이죠.

북한동포돕기와 연해주 고려인돕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고려인과 북한동포는 정말 내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에는 그동안 간장, 옥수수, 비료, 새 스판벳(5천여 명이 입을 수 있는 새 천), 여성생리대 2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천을 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을 만한 아홉 컨테이너 물량의 물건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의 1만 세대에 수도물이 넘치지 않을 자동제어 수도꼭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작년에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는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 동북아평화연대 김현동 국장이 광활한 땅에서 콩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서 1천만 원의 농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년퇴임은 했지만 한평생 습관적으로 남을 도와왔는데 아무 일도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해서 정년퇴임을 한 그 해 2007년부터는 호주 원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호주 정부에서는 그들을 돕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원주민을 돕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만 불을 도왔는데 앞으로도 형편이 되는 대로 호주 원주민을 돕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현산중학교에 체육관과 식당 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사에서 20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현산중학교는 최초로 출소자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 운동장이 충분치 못해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생기는 것은 저의 소원이었어요.

**해외 지원활동이 많으신데,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박 원로교무** 해외 구호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인도 노숙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인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북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설산사람을 돕기 시작했죠. 3천6백 미터 고지 설산에 마하보디 기숙학교를 설립하고 카루나 종합병원을 세웠어요. 히말라야 설산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옷, 담요, 솜이불 등을 8개월 동안 모아 여섯 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를 돕게 된 것은 1988년 9월 MRA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캄보디아의 우국청년 앵모리씨가 킬링필드의 비참한 현실을 눈물로 호소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MRA 스위스 본부를 통해 캄보디아 난민을 돕고, 고아원을 짓도록 후원했어요. 영국 할로재단을 통해 국민 숫자보다 많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기금 11만 달러를 보내고, 식수난 해결을 위해 76개 마을에 우물을 파도록 도왔습니다.

**그동안 봉사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한 회의 한 번 한 적 없다고 들었습니다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박 원로교무** 교도들은 다른 나라의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지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 교도들에게 강요하듯이 도와주자고 하면 공감을 얻기 힘들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 회의를 통해서 모금액을 정하고 협력을 요청하면 처음 한 번이야 그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55개국을 도울 때 마다 그렇게 할 순 없었어요.



바탕방 고아원아이들과 함께한 박청수 원로교무 / 히말라야 라다크지역을 방문한 박청수 원로교무





박청수 원로교무와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제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불교 여성교무가 법회 때 설교할 수 있는 단상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법시간이면 제가 나라밖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제 자신이 한 교당에서 26년간이나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계몽이 되어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발행하는 강남회보 소식지에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교도들은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투명함이 신뢰가 되어 모든 일을 가능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강남교당 교도들끼리 그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어요. 뜻있는 외부 분들의 협력의 힘도 컸지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2006년 호암상을 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부금 전액이 온전히 전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나눔의 인생을 걷게 된 것은 작고하신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박 원로교무 저는 어머님께서는 늘 “너는 시집가지 말고 너른 세상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당연한 과제가 됐던 것 같아요. 1956년 전주여고를 졸업한 직후인 19세의 나이에 원불교에 출가했죠. 어머니는 늘 제 인생의 정신적 중심에서 서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

고 행복해하시고 걱정하시고 협력해주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너른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 54개국을 방문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다보니 55개국을 돕게 된 것 같아요.

**평생 실천해 오신 나눔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박 원로교무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한 참상을 듣고 지뢰를 제거한 일과 내전으로 고아들이 많았는데 고아원을 세운 일, 그리고 절대빈곤층을 위해 무료구제병원을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북인도 히말라야의 설산 라다크에 학교를 세우고 카루나 종합병원이 세워지도록 후원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의 제가 한 일을 돌이켜 보면 모두가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 원로교무 30대 초반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교화하고, 서울지구 청년교화를 했어요. 그 때 인연을 맺은 젊은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때 내가 청년담임 교무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모여 들었죠. 그때까지 저는 우수하고 기대되는 청년들에게만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직자가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됐어요. 나는 왜 전도유망한 청

년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을까, 좀 부족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 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 내 자신이 매우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참회가 대안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죠.

### 국내에 설립한 학교만도 4개나 되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박 원로교무** 그 당시 전국적으로 8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건 싫지만 제각기 좋은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02년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국내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를 전남 영광에 설립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경기도 용인에 역시 대안학교인 현산중학교를 설립했죠. 이 두 개의 학교는 각각 정원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로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제안을 받고, 정부지원(1백억 원)을 받아 2006년 안성에 한겨레중·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됐습니다.

중국 훈춘에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학교, 캄보디아 바탐방에 세운 오인환교육센터에서는 한글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히말라야 라다크에 세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세계에 9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빼고는 모두가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지송학중학교, 현산중학교 졸업생들 모두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으니 그 학생들의 중도탈락은 막은 셈입니다.

### 그런 활동이 현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합니다. 재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박 원로교무** 처음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활동기간에는 정말 혼음을 아껴가며 최선을 대해 살아왔기 때문에 원불교 규정에 따라 정년퇴임을 하면 한가롭게 지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나의 이사장 수락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 큰 결심을 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나 자신이 농촌출신이기도 하고 내가 만약 관심을 쏟는 것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였지요. 재단의 일이야 오랫동안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임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 하루 출근하여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지요.

우리재단 장학금을 받으며 4년간 대학생활을 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때는 참 뿌듯해요. 학생들은 장학생이 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테고, 더 이상 부모님들이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란 생각을 할 때는 우리재단이 큰일을 하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우리재단에서는 전교생이 소수인 학교를 골라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원금을 받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꿈을 일구는 모습도 보기 좋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문예제전 행사가 있어요.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수필·소설 등을 공모하여 시상을 합니다. 작품들이 좋아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어촌 학생들에



### “종교의 벽을 허물고”

종교통합의 모델 제시하는 박청수 원로교무 ●

“박청수 교무님 하면, 나는 문득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을 연상한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천수관음은 두 손과 두 눈으로는 모자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지니고 한량없고 끝없는 자비와 구제를 펼친다. 종교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뜻한 가슴과 자비의 실천에 있다.”  
무소유의 삶을 마감하고 열반에 든 법정스님은 박청수 원로교무의 저서 <나를 사로잡은 지구촌 사람들> 추천의 글에서 자비와 나눔이 삶의 전부였던 그를 ‘천수관음보살의 현신’이라고 했다.

박 원로교무가 나라밖의 일을 처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스님은 박 원로교무가 힘들어할 때마다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돕느냐고 했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상대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어요. 절대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8개월이 겨울인 히말라야 라다크 설산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학교도 병원도 세울 수 없어요. 저는 나라밖의 일을 할 때 법정스님께서서는 인도를 방문하고 기행문도 쓰셨으니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시길 것 같아 그분께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면 스님께 걱정을 덜어낸 것처럼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스님은 나의 잔 세정을 알아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셨어요.”

1997년 길상사가 문을 열 때 법정스님은 그를 봉축위원회에 넣었고, 개원식 날 찾아간 박 원로교무의 지리는 법정스님을 중심으로 김수환 추기경과 그의 지리가 마련돼 있었다. “스님께서는 종교를 초월하여 상징적으로 추기경님을 초청하셨다고 생각하고, 원불교 여성 교무인 나에게 그 지리를 배려한 것은 남녀의 차별을 초월하신 거죠.”

박 원로교무는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이웃종교와 화합하는 삶을 강조한다. 소설가 박완서씨는 성 라자로 마을에서 박청수 교무를 처음 보던 날을 기억하며 “원불교의 수도자가 천주교 모임에 와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참신했다. 박청수 교무님을 대하는 신부님의 태도가 신뢰와 존경과 친밀감이 넘치는 것도 보기 좋았다”라고 회고한 적이 있다.

“인류역사상 종교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세계 한 구석에선 종교의 갈등과 분쟁이 있죠. 종교의 화합이 인류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주교 사설인 성 라자로 마을의 한센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신부님, 수녀님이란 함께 묵묵히 일하다 보면 종교의 벽도 허물어지고 한 집안 한 식구 같아져요.”

종교의 논쟁이 필요 없이 다만 소외계층을 함께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 원로교무는 성 라자로 마을을 31년간이나 도왔다.

게서 노벨문학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격려하지요.

**이사장님의 활동상을 보면 연세를 기능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박 원로교무** 사람의 일생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오늘’을 살고 보면 그 하루는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지요. 사람의 일생도 다시 살아볼 수 없는 일회적인 삶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값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면서 열정을 바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또 이기심을 갖고 까닭 없이 살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유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에 더 큰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명감이 큰 에너지죠.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삶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준 소중한 선연(善緣)**

28년간 그림자처럼 박청수 교무를 따르며 도와주고 있는 인물이 있다. 신현대 교도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박 교무의 길벗이 되어 주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다. 각종 원고를 정리해주는 것은 물론 세계를 누비는 박 교무의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전시관에 전시된 사진을 포함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모두 그의 작품이다. 박 청수 교무는 그를 가리켜 ‘자신의 분신’이라며 감사해한다.

**이사장님께서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원로교무** 연구원은 3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목표 아래 매주 목요일강좌를 계속해왔는데, 이처럼 강좌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라 할 수 있어요. 많은 기업인들이 윤리적인 기업인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기업인으로 그리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인들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 배경에는 장 회장님이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회장님은 35년간 좋은 강사들을 모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마일 쥬들맨’, 동양적으로 말하면 ‘덕인(德人)’이 되셨어요. 장 회장님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자기 암시를 통해 실제 좋은 세상을 만들고 계신 거죠. 연구원 회원들은 장만기 회장님의 멘토 역할을 통해 서로 상생적 만남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간개발연구원이 모든 기업인들이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박청수 원로교무는**

1956년 원불교에 출가했다.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철학 석사, 홍익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불교 사직교당, 원평교당에 이어 강남교당을 끝으로 은퇴했다. 원불교 평양교구장이었으며, 국제다종교협력기구(TOU) 이사, 지구촌나눔운동 이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성지송학중학교, 헌산중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 (재)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김보디아 왕실로부터 ‘사하 메트레이 훈장’을 수상했으며, 자랑스런 신한국인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사 포장 박애장 금장, 국민훈장 목련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 「나를 사로잡은 지구촌 사람들」, 「하늘사람」, 「마음눈이 밝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의 지나온 100년과 다가올 100년

정운찬 국무총리



사진제공 : 디플로머시

지난 3월 24일 월간 디플로머시(회장 임덕규)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초빙한 가운데 창간 35주년 기념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총리는 '한국의 지난 100년의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자'는 주제강연을 펼쳤다. 1975년 한국 유일의 외교전문 영문 잡지를 창간한 임덕규 회장은 창간 이래 각국 국왕과 대통령, 총리 등 350여명을 인터뷰하면서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 총리의 강연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월간디플로머시 회장 임 덕 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한 국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뿌리부터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위대한 정치 사상가들은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발전을 이루는 기반 상황이 그 국가가 유지되는 전 기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해 이야기한다.

### 역압과 고통의 불행했던 한국사

1910년, 100년 전 당시 조선은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정치지형에 적응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그 해 8월 주권을 잃게 되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인에게 1910년은 가장 어두운 해로 기억된다.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해방되어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불행하게도 곧바로 냉전시기가 찾아왔고 한국은 곧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그리고 UN의 지원 하에 1948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부를 세운 것이다. 한 가지 오점이 있다면 38선 이남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이다.

건국의 기쁨도 잠시, 2년 후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400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도시는 한줌의 재가 되었고, 수많은 전쟁고아와 피난민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불행한 출발이었다.

한국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후 40여 년 동안 한국은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 8%를 기록했고, 57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지금은 2만 달러에 달한다. 약 300배, 즉 30,000% 증가한 것이다. 현재 한국보다 더 많은 인구와 높은 1인당 GDP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 지난 100년간 비약적 발전 이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첫째, 한국은 훌륭한 우방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UN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UN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 헌법이 제정되었고 신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때는 UN안보리 결의안84에 따라 16개국이 병력을, 5개국이 의료부대를 파병하였으며,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립된 지 50년이 갓 넘은 대한민국에서 UN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둘째, 교육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천연자원과 자본이 없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다. 교육은 한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각인시키고 과거에는 불가



능했던 신분상승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개개인의 재능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을 단숨에 세계무대에 진출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셋째, 한국인들의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가혹할 정도로 노력했고, 이를 통해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6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고, 70년대에는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중동을 찾았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한국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은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면서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나가기야 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시민운동과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는 깨끗한 사회구현을 위한 한국인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출한 정부에 대한 무한한 애정, 이 모두가 합쳐져 오늘날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린 내린 것이다.


한국은 이제 GDP 1조 달러규모의 경제 대국이다. 올해는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들이 해외에서 활발한 원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3 more'로 세계에 희망과 비전 심어주는 나라

1910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과거 100년 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제안('3 more')을 하고 싶다.

첫째, 'more open', 다양성을 인정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전통을 이어왔지만 우리사회에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고 있고, 귀화 한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한다.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more confident', 현재의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역동적인 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젊은이들은 글로벌세대로 불리며 세계 속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과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신중한 자세와 강한 의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구촌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ore compassionate',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첨단 기기의 수출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비전의 주요 수출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세계는 지금 피폐했던 경제를 재건하고 정치적인 불안을 잠재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길 원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국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는 그의 시에서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묘사했다.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지구촌 곳곳에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밝은 등불로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영화 <전우치>

도사 전우치에게는 그를 따르는 충실한 부하 초랭이가 있다.  
초랭이는 본래 개였으나 도술로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었는데  
예쁜 여자들만 보면 추파를  
던지고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전우치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사실 년 암컷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장점은? 단점은? 비전은?  
올바른 정체성 확립은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석유종말시대** | 크리스토퍼 스타이너 / 박산호 역 / 시공사 / 356쪽



**유가가 2달러씩 오를 때마다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세계경제와 사회의 대격동 시나리오**  
 '포브스' 수석기자가 공개하는 21세기 충격 리포트. 석유고갈, 유가폭등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 어느 방향,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책은 석유의 공급 부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본문은 유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동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공학을 전공하고 토목기사 경력을 지닌 경제기자인 저자는 화학, 건축, 토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이 석유 공급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상승에 의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디자인에 집중하라!** | 팀 브라운 / 고성연 역 / 김영사 / 343쪽



**전 세계 CEO와 전략기획자들을 뒤흔든 디자인 혁신 바이블!**  
 3.1차원의 세계를 디자인하라.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까지 결합된 3.1차원 디자인이 2020년 세계 경제를 리드할 것이다. 세계적 디자인 컨설팅 기업 IDEO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 전략의 비밀을 밝힌다. 가장 혁신적 기업은 기획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디자인적 사고로 무장한 디노베이터를 전면배치하여 디자인 전략을 세우고, 적극 실행하며, 그들을 통해 소비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욕망까지 상품화한다. 이 책은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탄탄한 개념 정립과 디노베이터를 경영의 핵심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풍부한 사례와 창의력 개발을 위한 놀라운 사고 기법을 소개한다.

**노자강의** | 아오간밍 / 손성하 역 / 김영사 / 448쪽



**노자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강의하다!**  
 노자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아오간밍 교수가 '고급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야심차게 기획하여 13억 중국인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백가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무위자연의 도를 벗어나 현실의 도를 추구한 노자의 생태학적 사상을 현대인의 생활에 비교해 새롭게 해석했다. 건강, 성공, 아름다움, 사랑, 결혼, 이혼 등 현대의 문제점들을 노자 식으로 해석하고 <도덕경>에 담긴 처세의 격언을 전해주고 있다. 저자인 아오간밍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최고의 노자 연구가이며, 각 분야의 학술 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열렬히 사랑받는 중국 최고의 석학이다.

**사과가 가르쳐준 것** | 기무라 아키노리 / 최성현 역 / 김영사 / 2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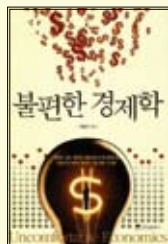
**사과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의 감동스토리!**  
 썩지 않는 사과의 주인공 사과 명인 기무라 아키노리 감동실화다. 스물아홉의 나이에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무농약 사과 재배에 도전해 농약도 비료도 쓰지 않고 오직 정성만으로 최고의 사과를 만들어낸 기무라 아키노리의 인생 역정과 그 속에서 견져낸 100년을 내다보는 주옥같은 달관의 지혜가 담긴 자전 에세이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농약 사과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려간 그의 이야기는 상식을 뛰어 넘는 도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뭐든 쉽게 포기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전한다.

**인생, 전쟁처럼** | 앨런 액슬로드 / 구세희 역 / 21세기북스 / 312쪽



**전쟁처럼 치열하게 자신을 경영하라!**  
 심각한 경제위기와 불안한 국제정세, 환경파괴와 천재지변,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위기를 말한다. 한번 실패하면 낙오되어버릴 듯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 조직 안에 소속된 개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베스트셀러 전기작가인 저자는 수많은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승리의 대명사, 윈스턴 처칠의 인생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그는 처칠이 거둔 기적 같은 승리 뒤에 숨어있는 성공전략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냈다. 저자는 처칠이 승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켰던 원칙과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물다섯 가지 방법론으로 정리했다.

**불편한 경제학** | 세일러 / 위즈덤하우스 / 656쪽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혹은 거짓말**  
 2008년 말부터 아고라 경제토론포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저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제현상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한국경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갖도록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008년 말의 경기침체와 환율 폭등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경제의 원리와 자본주의 경제의 지난 역사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사례와 도표를 철저히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원리,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생존대책 등을 들려줌으로써,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결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라** | 티모시 케이닝햄, 러잔 액소이, 루크 윌리엄스 / 박선영 역 / 지은 / 256쪽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확실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충성에 집중하라!**

고용주와 직원, 남편과 아내, 친구와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충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는 책이다. 인간관계, 경제, 직장, 교육, 사회 등 다방면에 내재되어 있는 충성에 대해 알아본다. 충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판이한 현대 사회에서, 충성과 신뢰의 문제, 충성을 가르치는 방법, 이것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만드는 방법 등을 살펴보면 충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발레 '심청'**



유니버설발레단이 86년에 창작한 발레 '심청'은 전 세계 9개국 17개 도시에서 150여 회의 공연을 하여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뉴욕타임즈, LA타임즈 등 세계 유명 언론들은 '심청'의 작품성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발레 '심청'은 해방 이후 40년 동안 무용공연 베스트10과 86년 아시안게임 문화 예술축전 최우수 발레에 선정되었으며, 88년 서울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특별 초청작품으로 공연되었다. 2001년에는 미국 3대극장인 뉴욕 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센터, LA뮤직센터에서 박스 오피스를 석권하기도 했다.

- **일정** : 5월 24일(월)~5월 30일(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29

**연극 '안톤체흐의 벚꽃동산'**



예술의전당은 2010년 토월정통연극시리즈로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안톤 체흐의 '벚꽃동산'을 무대에 올린다. 연출과 무대미술은 2004년 '갈매기'로 첫 내한해 지난 2008년 관객과 평론가가 선정한 예술의전당 최고의 연극으로 선정된 바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 연출가 그리고리 지차트롭스키와 에밀 카펠류슈가 다시 한 번 외국의 배우들과 작업해, 100여 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이자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희곡작가로 사랑받고 있는 체흐의 대표작 '벚꽃동산'에 새로운 감동을 불어넣게 된다. 한국 공연 후에는 러시아 볼코프 국제연극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본고장에서 러시아 관객들과 만난다.

- **일정** : 5월 28일(금)~6월 13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문의** : 예술의전당 02-580-1300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그리스신화 속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이 펼치는 사랑의 로망을 그린 바로크오페라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아내 에우리디체를 잃은 오르피오, 그녀의 무덤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자 사랑의 신 아모르가 나타나, 그의 아름다운 노래가 하늘을 감동시킨다면 죽은 아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단, 지상으로 나올 때까지 절대 그녀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약속과 함께...

- **일정** : 5월 16일(일)~5월 20일(목)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문의** : 국립오페라단 02-586-5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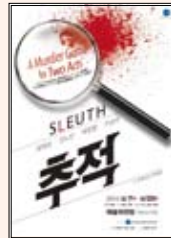
**고려인동포돕기 자선음악회 'KORUS'**



(사)한러친선협회와 (사)동북아평화연대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베토벤바이러스'의 지휘자 서희태의 해설이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lecture Concert) 형식으로 진행되며, 러시아음악과 우리의 민요를 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언어로 풀어 전통 국악 연주와 협연을 시도한다. 한편 음악회의 수익금은 고려인농업자활인프라 기금조성과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일정** : 6월 10일 20시
- **장소** : KBS홀
- **문의** : 1688-7050

**연극 '추적'**



두 남자의 쫓고 쫓기는 추리 심리극 '추적', 숨 막히는 반전과 반전 속으로 초대한다.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생긴 마일로와 거짓 살인의 증거로 체포되기 일보직전인 앤드류의 처절한 게임을 그린다.

- **일정** : 5월7일(금)~6월 20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문의** : (주)인터스페이스 아트그룹 02-2647-8175

**오페라 '세미라미데'**



고대 바빌론을 배경으로 하는 볼테르의 비극 '세미라미스'를 바탕으로 하는 '세미라미데'는 로시니가 파리로 옮겨가기 전에 이탈리아를 위해 작곡한 마지막 오페라이다. 규모가 크고 꼼꼼히 작곡되어 있어서 로시니의 오페라 세리아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은 벨 칸토 창법의 최고의 표현력을 장려하게 보여주는데 가창기술의 극치가 극단적 감정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일정** : 5월13일(목)~5월 18일(화)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한국오페라단 02-587-1950~2



## 김재우 기업혁신연구소 회장의 경영 포인트

# 독서·코칭·감사는 경영혁신 3박자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어 초일류기업, 영속기업으로 생존하는 것이 기업의 근본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CEO의 리더십과 경영노하우가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CEO는 수많은 경영트렌드 중 조직에 맞는 경영기법을 발굴 및 도입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최신의 경영트렌드와 함께 이를 도입해 실천하고 있는 CEO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본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재우 회장의 경영혁신 이야기로 감사나눔신문 정지환 편집국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제공 : 감사나눔신문



김재우 기업혁신연구소 회장의 한남동 사무실에는 굵직한 서체로 다음과 같은 여덟 자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

###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

김 회장이 1977년부터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이 여덟 자는 그가 30대 직장인을 위하여 저술한 「Think Big Act Fast」로 변안(變案)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착안대국 착수소국’을 마음 속에 새긴 이래로 무슨 일을 하든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검토한 후 세밀하게 일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 ●세지마 류조의 좌우명 선물

김 회장에게 이 좌우명을 선물한 인물은 일본 정계와 재계의 거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세지마 류조(瀬島 龍三)였다. 1977년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세지마 회장을 김포공항에서 영접해 서울 시내의 호텔까지 모셔야 하는 임무가 김재우 삼성물산 차장에게 부여됐다. 당시 66세의 이토추상사 회장 세지마 류조를 모시고 한강변을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33세의 삼성물산 차장 김재우가 대뜸 질문을 던졌다.

“세지마 회장님, 종합상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지마 류조는 예상치 못했던 당돌한 질문에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바로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짓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그런 다음 그가 명함 뒷면에 친필로 써 준 글자가, 김 회장의 평생의 화두가 된 '착안대국 착수소국'이었다.

**Q 평생의 화두가 이제는 풀렸습니까?**

“완전히 풀렸다고 하면 과장이 되겠지요. 그 화두를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겁니다.”

**Q 당돌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화두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군요?**

“어렵게 만난 거물을 호텔에 그냥 내려주고 돌아오는 벨보이가 되기는 싫었어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보통 하는 것이 통성명과 ‘스캐닝’입니다. 특히 스캐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부를 검색하여 필요한 항목을 찾는 일을 말하는데, 상대를 제대로 스캐닝하려면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주 성의껏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나는 소통에서 차지하는 질문의 위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Q 최근 사람을 만나거나 강연을 하실 때 ‘행복지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군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G20 정상회담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지만 안에서는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T.S 엘리엇가 ‘Where is life’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Q 회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됐다고 곧바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팔꿈치로 살짝 건드리는 것**

**Q 최근 한국코치협회 회장에 선출되셨죠?**

“주변에서 우스개 소리를 하는 분이 있더군요. 당신은 농구 코치도 아니고 골프도 잘 치지 못하는데, 무슨 코치협회 회장을 맡았냐고요. 그런데 코칭(Coaching)은 기존의 티칭(Teaching)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티칭이 사람의 재능을 키우기 위하여 밖에서 안으로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라면 코칭은 그 사람 안에 잠자고 있는 천재적 거인을 깨워주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



방이 ‘아, 그래 맞아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넛지’가 던져준 메시지처럼 팔꿈치로 상대방을 살짝 건드려 주는 것이지요.”

**Q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적절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기업에서 베이비부머들이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55년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로 56세에 불과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온 사람이라면 패배와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공자가 논어에서 제시한 낙지자(樂之者)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칭은 바로 이런 오류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런 오류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Having)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Doing) 인간다운 삶(Being)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는 Being, Doing, Having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재산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GROW라는 단어의 이니셜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Q GROW의 이니셜은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 Goal(목표파악), Reality(현실인식), Option(선택제시), Will(계획, 실천)을 가리킵니다. 길을 가다가 목표를 잃으면 낭떠러지에 이릅니다. 자신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요. 일단 길을 선택하면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운동을 2시간으로 늘린 이유

**Q 저서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피터 드러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분은 96세까지 경영자의 코치로 활약했습니다. 최근 회장님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아침 운동 시간을 기존의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데, 바지가 내려가면 땀을 해야 하듯이 운동 시간을 늘려서 떨어지는 체력을 보강하고 있지요. 정신적으로는 몰입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모리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마인드맵(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머리와 가슴의 간격인 30cm가 인체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는 말이 있는데, 마인드맵을 동원해 그 거리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요.”

**Q 그렇게 하면 시야가 넓어질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서면 이 세상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500m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은 천하가 보이고, 2000m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은 천하가 보이는 법이지요. 몰입과 성찰이 그러한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Q 독서경영을 통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벽산을 위기에서 구한 것으로 유명한데, 독서경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나는 직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에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견했지요. 이 책은 어니스트 새클턴 함장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가 남극 횡단에 나섰다가 부빙(浮氷)에 고립되어 537일 동안의 극한 상황에 놓였지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27명의 대원 전원이 무사히 생존한 기록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나는 이 책이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직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직원들은 새클턴의 탐험선인 인두어런스호의 위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선장인 CEO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경영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후로 매달 1권씩 읽도록 했습니다.”

**Q 나름의 독서론이나 독서습관도 갖게 됐을 것 같은데요.**

“앨빈 토플러는 재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을 21세기의 문맹자라고 규정했습니다. 2500년 전에는 공자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혜를 응용한 것이 바로 독서경영인데, 가장 싸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서가 습관이 되면서 최소한 한 달에 5권의 책은 읽고 있습니다.”

**Q 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평화,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랑이 몰아치던 하루를 보내고 감사를 생각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Q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셀프 코칭에서는 ‘레이저를 가지고 네 안의 나쁜 것을 썬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레이저를 가지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하루 1가지에서 2가지로 늘려가다 보면 우리 생활은 감사로 물들게 될 겁니다.”

정지환 기자 lowsaejae@hanmail.net



김재우 회장은

**‘수출전사’에서 ‘기업혁신가’까지 경험**

1944년 마산에서 출생한 김재우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김 회장은 삼성물산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초대 런던 지사장을 맡았으며, 1975년 베이루트 지사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성과 1억 달러가 넘는 군수물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삼성물산의 연간 매출액이 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때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김 회장은 이란-이라크전 당시에는 포연을 뚫고 이라크에 잠입해 현대와 대우 등의 유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출 계약을 따냈으며, 한국-이라크 수교 당시에도 막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6년 삼성물산 정보산업부문 총괄 전무이사, 1989년 삼성항공 방위산업본부장을 맡았던 김 회장은 1994년 삼성중공업 부사장을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을 떠났다.

김 회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벽산그룹에 ‘기업혁신 구원투수’로 스카우트되어 1년 만에 조기 졸업시킴으로써 깜짝 놀랄 만한 ‘또 하나의 신화’를 대한민국 기업사에 등재했다. 실제로 약 300억원의 적자를 냈던 벽산은 2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김 회장은 「CEO 김재우의 30대 성공학 : Think Big Act Fast」 등의 저서도 가지고 있다.



# 영혼이 있는 기업이 번창한다

글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애플, 구글, 야후, 맥킨지, 시스코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상적인 경영에서 명상클래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애플의 캘리포니아 지사에는 명상실이 있고, 직원들은 여기서 하루 30분씩 명상을 하거나 각자의 종교에 맞는 기도시간을 갖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의 향상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이직율이 낮고 애사심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상을 보게 된다. 영혼의 경제시대, 즉 기업경영의 영성시대가 도래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최근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등 '홍부자본주의'를 표방하는 80명의 홍부기행단과 함께 남원, 곡성, 완주 등으로 이틀간의 흥미롭고 유익한 여행을 다녀왔다. 홍부기행단 동행자들은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의 침체기이거나 머지않아 호경기가 돌아올 것이라는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늘부적 이기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귀결이며, 이러한 이기적 시장지상주의 경제위기에서는 경이적인 성장을 누렸던 구시대의 경제질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시장경제가 탄생하는 진통기를 세계와 한국은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창을 열어아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병철, 정주영식의 구시대 자본주의가 초래한 반자본주의 정서, 심각한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유일한식의 사회책임 자본주의 혹은 홍부자본주의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17~19세기에는 홍부정신이 개인적으로 전범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홍부형 인간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최고의 정책전문 컨설턴트로 명성을 쌓은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21세기는 구시대 자본주의와는 달리 이타적인 기업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21세기 위기의 한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이 최근의 북한 도발에 의한 남북문제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국으로 성장하려면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등 지식정보시대의 경쟁력시대를 넘어서서 먼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하는 이타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상생정신의 새 시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생각하는 영혼의 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서의 교훈을 새롭게 음미해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위기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길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영혼의 시대, 지혜의 시대를 이끌어갈 사랑과 용서를 근본으로 하는 화해의 시대, 통합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사를 향하여 TPT재단을 창설하고, 재단의 창설 정신에 따라 'TPT Mentor Network'을 조직화해 '좋은사람 좋은세상'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 인류의 번영, 인간의 행복이라는 인간개발의 비전과 시대정신으로 영혼의 시대, 지혜의 시대를 이끌어 갈 섬김의 리더십을 개발·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깊이 믿고 열정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인간개발연구원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애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를 바란다. **장만기**

#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욱)**의 코리아나화장박물관에서는 7번째 소장품 테마전으로 “모자의 나라 조선”을 전시한다. 전시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우리 모자를 구할할 조선을 찾았던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들에게 각인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문화 속 모자의 진가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전시기간 : 2010년 3월 18일 ~ 2010년 10월 30일
- 장소 : 스페이스 씨 6층 화장박물관 특별전시장 (강남구 신사동 627-8 / Tel. 02-547-9177)



■ **삐띠프랑스(회장 한홍섭)**에서 5월 31일까지 어린왕자 원화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왕자 원화 24점과 초판본(영, 불 버전 3점), 생텍쥐페리의 팔찌가 함께 전시된다. 전시되는 팔찌는 생텍쥐페리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의문설을 일축시키는 근거로서 1998년 9월 7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리우섬 근방에서 어느 어부의 트롤망에 걸려 올라온 생텍쥐페리의 이름이 적힌 팔찌이다.



### ■ 김창송 (주)성원교역 회장은

한국수입업협회 제18대 집행부 구성원으로 'CEO 아카데미' 원장에 선임되었다. 김창송 회장은 한국수입업협회의 초대 연수원장, 부회장, 고문직 등을 역임했다.



### ■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지난 4월 5일 UNGC(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UNGC 한국협회장으로 추대되었다. UN산하 UNGC는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자 지난 2000년 발족한 자율적 국제협약기구이다.



### ■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설립자 겸 명예회장 김용복)은

지난 4월 20일 저녁 6시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사)영랑기념사업회(회장 김용복)는 우리나라 대표적 서정 시인이자 민족 운동가인 영랑(永郎) 김윤식(金允植) 선생의 민족사상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제5회 영랑문학제를 4월 23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다.

### ■ 조인스HR 가재산 대표이사는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급여전문가 양성 과정 3기를 개설하여 모집 중이다. 가재산 대표는 지난 3월 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최하는 제5회 컨설팅혁신대전 행사에 컨설팅우수컨설팅사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 일 시 : 5월 18일(화) ~ 29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4층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 참가비용 : 25만 원(교재, 중식포함, 부가세별도)
- 교육정원 : 선착순 40명
- 참가문의 : Tel. 02-890-0840

■ **동북아평화연대(사무총장 황광석)**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러시아수교 20주년기념 고려인동포돕기 자선음악회-KORUS'를 개최한다. 음악회 1부는 러시아 전통음악을, 2부는 국악을 교향악으로 재작곡한 '다울프로젝트'를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간 격조 높은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 일시 : 2010년 6월 10일 오후 8시
- 장소 : KBS 홀
- 주최 : 한러친선협회, 동북아평화연대,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
- 후원 : 인간개발연구원, 강남구상공회의소, KBS,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 청수나눔실천회, 두레생협, 재외동포신문
- 지휘 : '베토벤바이러스'의 지휘자 서희태,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 VIP석(15만원), R석(12만원), S석(10만원), A석(7만원), B석(5만원)
- 문의 :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황광석(010-6222-1945)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청수)**은 지난 4월 9일 재단 사무국에서 2010년도 신규 대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11명의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선발한 장학생 중 올해 대학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이 장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재단은 농어촌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선발대상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여 선발해오고 있다. 한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1994년부터 어려운 여건의 농어촌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00여 명의 학생에게 약 120여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이태리 명품 ETRO 한국총판인 (주)듀오(사장 이충희)**는 지난 3월

본사 5층에 백운갤러리를 오픈하였다. 개관기념 특별 전시는 성영록 화가의 작품으로 문을 열었다. 성영록 화가는 듀오가 후원하는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추운 겨울을 깨고 제일 먼저 피어나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 위치: 백운갤러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5 백운빌딩 5층 / Tel.02-3018-2352)

■ **홍성원 전 현대H&S 대표이사**가 지난 3월 18일 코엑스 사장에 취임하였다. 취임 후 홍 사장은 코엑스 육군협회 김판규 부회장, 비투엑스포 신준호 사장과 지난 4월 1일, 방위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IT 융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2010 국제 최첨단 군 전자장비 시스템 산업전(IDF)'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엑스, 육군협회, 비투엑스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10대 군사강국으로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대표 전시회를 육성하고, 통신, 정보, 전자 등 다양한 민간 IT기술의 적용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회원 & 연구원 소식

- **김중훈 한미파스스(주) 회장**은 지난 3월 11일 도심공항터미널 3층서 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설립식**을 가졌다.



-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은 최근 <이보규와 행복디자인>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 하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모두 필자가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고, 실천했던 내용들이다. 출판기념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시: 2010년 5월 13일 오후 3시
- 장소: 서초 로얄프라자웨딩홀(02-521-2000) 지하철 2호선 서초역 4번출구
- 책제목: 이보규와 행복디자인
- 주관: <이보규와 행복디자인> 출판준비위원회 (02-416-8801)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그룹은 1995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회장으로서 수고해주신 **유상욱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신용웅 원림상사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종그룹의 발전과 친목을 위해 수고해주신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룹은 지난 4월 26일 제273차 정기모임을 갖고 유상욱 회장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의 5월 정기모임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5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BUON POSTO(본쁘스토) 이탈리아인 레스토랑

(강남구 청담동 90-25, Tel. 02-544-4081)

- 내용: 정태익 회장의 국제 정세와 외교사 이야기, 회원 단합대회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010-5306-8587)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4월 모임은 할리데이비스 코리아를 방문하여 특색 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토사이클로 남산코스를 시승 후 할리데이비스에 대한 동영상과 자료를 통해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장에서 다양한 모터사이클에 대한 설명도 듣고 맘에 드는 모터사이클에 올라 타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와 기념품까지 준비해주신 이계웅 할리데이비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모임은 성연미(봄온아카데미 대표)회원님께서 CEO 미디어스피치에 대한 유익한 스피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처럼 고품격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5월 11일(화) 18시 30분
- 문의: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과장(070-8670-8434)



- **人經會(회장 이웅국/총무 이종원)** 5~6월 월례경기 일정

- 일시: 5월 25일(화), 6월 22일(화) 오전 5시 40분
- 장소: 한양 C.C
- 참석: 인경회 정회원 및 참석 희망자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010-5306-8587)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은 문학의집\*서울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갖고 손광성 수필가의 지도로 회원들이 쓴 수필을 교정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세이클럽 5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5월 10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화관 2층홀
- 문의: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연구원소식

### ■ 장만기 회장, 자랑스러운 매산인 선정

본원 장만기 회장은 지난 4월 15일, '자랑스런 매산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순천매산 총동창회는 '1975년 인간개발연구원을 창립하고 지금까지 164회가 넘는 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하여 한국기업과 경제를 선진화, 세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기독실업인회를 전국 또는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매산의 얼을 빛낸 공로가 인정되어 경영부문 자랑스런 매산인으로 선정한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매산고 9회 졸업생으로 그동안 자랑스러운 매산인 상 수상자로 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노관규 순천시장 등이 있습니다.

### ■ 한러친선협회 회장 이취임 및 러시아언론인 환영조찬

한러친선협회(이사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는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유종하 회장(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뒤를 이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모임은 러시아언론인 방한단을 환영하는 자리를 겸해 열렸으며,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국영통신사 사장(러한친선협회 회장), 티모닌 주한러시아 부대사 등 러시아 언론인 10여 명이 참석해 한국기업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기업인으로는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이병호 STX에너지 사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	직함	창립기념일
주식회사 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부원광학(주)	박춘봉	회장	5월 1일
(주)미진	정지미	이사	5월 2일
(주)한국아쿠르트	김순무	고문	5월 10일
삼익THK(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삼이그룹(주)	김석희	회장	5월 13일
(주)우진	이상범	회장	5월 13일
서울사이버대학	김수지	총장	5월 14일
ESODO	김진희	대표	5월 15일
(주)홍진플러스	추민수	대표이사	5월 15일
신원휠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주)성한트렌스텍	박이락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주)파로스 이앤아이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주)한국종합건축사 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회장	6월 1일
삼정회계법인	배원기	전무이사	6월 1일
서울중앙클리닉	김 광	행정원장	6월 2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우리BM	곽창선	회장	6월 7일
(주)테크노랜드	서정환	사장	6월 13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 17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대성MDI(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 27일
KB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김영욱	이사장	6월 29일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및 <좋은사람 좋은세상>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식 및 원고 : 정용달팀장 dal2020@khdi.or.kr

홈페이지 : www.khdi.or.kr

전화 : 02-2203-3500 / 팩스 : 02-2203-1974

# WELCOM TO KHDI

Better People Better World를 실천하며 각계 리더들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달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 ▶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법인회원 재가입)

농협은 단 1%의 외국 자본 없이 순수국내자본으로 구성된 민족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경쟁력 향상과 금융산업 발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농업인과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금융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주택자금, 농기업론 등 다양한 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며, 농축산업 재해와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전화 : 02-2080-5114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길 91번지
- 주사업 :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 참가임원 :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이사, 김윤택 상무, 윤종일 상무
- 홈페이지 : www.nonghyup.com



## ▶ 홍기준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법인회원)

1965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PVC 및 LDPE, LLDPE를 생산해 온 한화케미칼은 1980년대 들어 정밀화학산업의 기반이 되는 CA(염소/가성소다)사업에 진출하여 합성수지사업과 조화를 이룬 유기/무기 화학을 고루 갖춘 세계 유수의 화학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화케미칼은 PE, PVC, CA 이외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한 나노소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나노소재 분야는 CNT(탄소나노튜브)응용소재 사업화 및 나노입자 제조기술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발전용 Cell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며, 향후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분야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모듈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 전화 : 02-729-2604 / 팩스 : 02-729-2731
- 주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 주사업 : 플라스틱 소재, PE, 파이프, 벽지, 바닥재, PVC 등 석유화학 제품 전문생산
- 참가임원 : 이성수 상무, 문석 상무, 유동완 상무, 장윤익 상무
- 홈페이지 : hcc.hanwha.co.kr



## ▶ 김상도 (주)파워넷 회장 (개인회원)

파워넷은 1988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종업원 수는 본사 45명, 중국심양 240명, 중국동관 370명 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LCD 모니터와 TV용 전원공급 장치에 이용되는 SMPS입니다. 파워넷은 2004년 법정관리기업 상태에서 김상도 회장이 취임하여 뛰어난 경영능력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취임 5년 만에 300억 적자 기업에서 탈피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76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회생시켜 2009년 기업혁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전화 : 02-3282-0700 / 팩스 : 02-3282-0800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1번지 한국전자협동빌딩 5층
- 주사업 : SMPS(LCD Monitor, TV용 전원공급장치) 전문생산
- 홈페이지 : www.gopowernet.com
- 추천인 : 이재산 조인사HR(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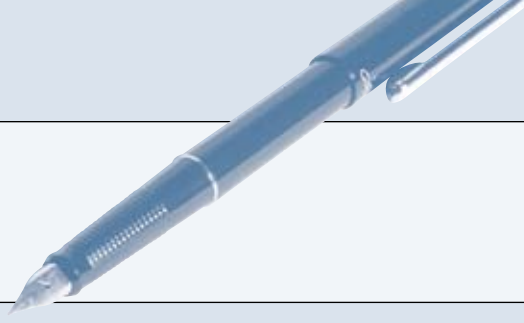


## ▶ 박재돈 한국파마 회장 (개인회원)

한국파마는 '인간존중', '천직관념'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1974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복지향상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대통령 산업훈장 철탑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박재돈 회장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M경영대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전화 : 02-558-1277 / 팩스 : 02-558-167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33 백림빌딩 8층
- 주사업 : 장세척의 솔린액, 솔린오랄 및 거품정, 피부질환제 등 의약품 전문생산
- 홈페이지 : www.koreapharma.co.kr
- 추천인 : 정문호 동국산업(주) 부회장





▶ **공상훈 투에이디자인 대표이사** (개인회원)  
 · 전화 : 02-2136-4212 / 팩스 : 02-564-422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 주사업 : 인테리어 디자인  
 · 추천인 : 최진석 동성홀딩스 부회장



▶ **손귀환 한신전자공업 고문** (개인회원)  
 한신전자공업은 1994년 8월 설립되었으며 종업원 수는 인천시 남동공단 본사에 120명, 중국 연태 지사에 180명 등이 종사하고 있는 통신부품, 전기, 전자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핸드폰과 관련하여 모바일 컨넥터와 이탑터, 그리고 모터터미널 등을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화 : 032-822-8256 / 팩스 : 032-822-8259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16-3 남동공단 144b-4L  
 · 주사업 : 모빌컨넥터, 모터터미널(전자부품)  
 · 홈페이지 : www.hstml.com



▶ **이규태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 (개인회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는 1995년 설립 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오고 있습니다. IT기반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편리한 e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규태 부회장은 서울 부산체신청장 등을 역임하고 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 전화 : 02-2183-0860 / 팩스 : 02-2183-0877  
 · 주소 : 서울시 강남 역삼 707-34 한신인터밸리 24동관 1701호  
 · 주사업 : e-비즈니스 교육, 컨설팅 서비스, 솔루션 수출지원, B2B 인프라 서비스, GDSN Data Pool 서비스  
 · 홈페이지 : www.koipa.or.kr



▶ **이승규 롯데면세점 상무,**  
 ▶ **이홍균 롯데면세점 상무** (세미나회원)

롯데면세점은 1980년 개점 이래 전국 8개 지점망과 400여 개 이상의 세계 유명브랜드 상품을 보유한 세계적인 면세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개점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전화 : 1688-3000(대표번호) / 팩스 : 02-319-2463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 롯데빌딩 22층  
 · 홈페이지 : kr.lottedfs.com/



▶ **이세복 볼텍스코리아 대표이사**(개인회원)

국회 정책보좌관 출신인 이세복 대표이사는 (사)니눔의 마을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이며 볼텍스코리아의 주 사업은 재보험 및 위험관리 컨설팅입니다.

· 전화 : 02-782-1662 / 팩스 : 02-701-6483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5 한화 오벨리스크 1708호  
 · 주사업 : 재보험 및 위험관리 컨설팅



▶ **홍해근 (주)풋바란스 대표이사** (개인회원)

풋바란스에서는 닥터 세로톤 슈즈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르카프와 함께 국내신발판매 및 해외 판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세로톤 슈즈는 기능성 신발로 좋은 신발을 신고 세로토닌 워킹을 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생활리듬이 살아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비만, 암, 고혈압, 당뇨 등의 병은 올바른 운동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세로톤 슈즈는 이를 돕습니다.

· 전화 : 02-501-0786 / 팩스 : 070-8786-3525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학여울역 전시장  
 · 주사업 : 닥터세로톤 슈즈 개발, 브랜드 특허, 상표소유, 르카프와 국내신발판매 및 해외판매 유통  
 · 홈페이지 : www.seroton.co.kr 일산삼성스위트1206  
 · 업종 : 기술용역 외

# 인간개발연구원, 정기 아카데미 통해 평생학습의 장 이어가

2010년 3~4월,  
전국적으로 170회  
강연 열려

## 교육컨설팅 소식

### 기업, 공공기관에서 36회 교육

기업 정기특강 부문에서는 "2010 트렌드 흐름"을 주제로 한 김남도 서울대 교수의 리바트 강연을 시작으로 대웅제약에서 윤태익 CMC의식경영컨설팅(주) 대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YPP디지털에서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 임직원 정기특강을 진행하였다. 공공기관 정기특강 부문에서는 지난 4월 16일,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강연에 나서 "암, 극복할 수 있다"를 주제로 암 예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정사업본부 '포스트 아카데미'에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강사로 나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직활성화 워크샵 부문에서는 3월 23~24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워크샵을 총괄 기획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동부제철 협력기업 사장단 워크샵, 대한조선 임직원워크샵, 동양석판 임직원워크샵, 포스코건설 경영지원실워크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컨설팅하였다. 이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 컨설팅은 지난 3~4월간 총 36회의 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 지방자치아카데미, 3~4월 122회 강연

본원은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지도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계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전남 장성군을 시작으로 활성화된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매년 7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를 함양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도 3~4월 동안 장성군 '장성아카데미'에서는 박청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부천시청의 '복사골아카데미'에 금난새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등 전국 지자체에서 122명의 사회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 병영선진화를 위한 아카데미 9회 개최

본원은 지난 3~4월 기업과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 등 군부대에서 병영선진화를 위한 정기교육 컨설팅을 9회 진행하였다.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 이하 초중고급간부들의 사회 변화 트렌드 인식과 창의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진행되어 온 병영선진화 아카데미는 현재 '육군 선진아카데미'와 '공군 하늘사랑 아카데미'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육군 선진아카데미'의 경우 2006년 3월 첫 강연을 시작해 매월 2~3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여 명이 강연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 하늘사랑의 아카데미' 역시 공군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로 확산되어 부대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육·공군의 아카데미 강사로는 장대한 매일경제 회장을 비롯하여 조동성 서울대 교수,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명사들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우정사업본부 국가고객만족도 2관왕**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3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우편서비스 9년 연속 1위, 우체국택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사업특성상 정무기관이면서 금융, 택배 등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환경에서 우편서비스와 우체국택배가 연속해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변화와 혁신의 바탕 위에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과, 끊임없는 고객감동경영의 노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고객만족도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고객감동경영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JDC, KOTRA와 투자유치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JDC)는 지난 4월 13일 코트라와 JDC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07년 12월 체결한 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재협약을 통해 코트라 해외무역관(KBC)을 활용한 투자자 발굴, 심층조사, 사전접촉 및 해외설명회 개최 협조 등 JDC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왔다. 올해로 세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양 기관은 KBC 내에 JDC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육군, 안중근 장군실 개관식 및 기념강연**

육군은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 장군실'을 개관했다. 육군은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안중근 의사를 '군인정신의 사표, 군인의 표상'으로 삼아 길이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안중근 장군실을 개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관식 직후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본 간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참모총장 안중근"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안 의사가 소속된 대한의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주권 수호를 위한 민족적 저항의 효시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면서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은 국가적 공인성을 가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 의사가 이끈 특파대의 하얼빈 거사는 대첩이라고 부를 만한 큰 전과였다"고 말했다.



**장성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준공**

전남 장성군(군수 이창)은 나노기술을 활용해 전남의 특산 자원을 고부가 제품으로 개발하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를 3월 30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나노바이오연구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나노융합 의료부품소재와 생물 나노소재 등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나노융합의료부품 소재산업 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열어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완도군청 공무원들, 소년소녀가장 돕기 17년째 봉사**

전남 완도군(군수 김종식) 공무원들이 17년째 묵묵

히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수와 과장, 계장 등 간부 80여 명이 소년소녀가장과의 자매결연에 참여하고 있다. 완도군은 1993년 한 직원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운동을 펴자"고 제안한 뒤 군 특수시책으로 채택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29일 군 종합복지회관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을 초청, 준비한 선물 등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완도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실시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전국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오는 10월 전국 시장·군수 지역발전정책 설명회에서 정부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완도군은 '살아 숨쉬는 청정바다, 건강의 섬 완도(해양 테크노폴리스)'를 비전으로 정하고 전북 세계 일류화 상품 개발, 세계 해양영양공원 조성,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등 1조2718억 원이 투자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군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성황**

'슬로시티',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전남 완도군 청산도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010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풍경에 취해 절로 걸음이 느려진다는 청산도 슬로우 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청산도를 걷기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은 걷기 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세로토닌'과 '걷기'를 접목, 이 분야 권위를 자랑하는 이시형 박사와 함께 '청산 세로토닌 걷기'를 진행함으로써 걷기를 통해 몸이 치유되고 경관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는 최적의 장소는 청산도라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청산 세로토닌 걷기'는 이시형 박사가 직접 걷기와 세로토닌의 관계 및 세로토닌 워킹법을 설명하면서 관광객들과 함께 슬로우 길 1코스(6.8km)를 걷는 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객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 2010 JEJU CEO SUMMER FORUM



## 2010 JEJU CEO SUMMER FORUM

### 새로운 항해를 위한 출발

꿈과 희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CEO 최고의 지혜여행, 2010 제주 섬머포럼에 가족과 함께 초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 동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항해를 위한 출발선에서 경영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감성과 문화를 통해 창의 경영을 충전하며, 100년 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항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모시고자 합니다. 더불어 3박4일 동안 부부가 함께하는 포럼구성으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인생의 성공을 위해 3박4일 동안 가족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비전과 경영, 행복한 휴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일차 프로그램 | 7월 28일 수요일

일 정	프로그램
	김포공항-제주공항 이동
	참가자등록 및 체크인 자유시간
17:00-17:10	개회사
17:10-18:40	기조강연   G20정상회담과 세계경제 균형성장 협력방안 윤중현 재정경제부 장관
18:40-20:00	환영만찬   즐거운 인생 건강한 삶

### 2일차 프로그램 | 7월 29일 목요일

일 정	프로그램
	굿모닝 여행 : 제주올레 외 2010 제주섬머포럼 골프대회 점심식사 (골프 관광일정 포함)
14:30-15:30	인문학콘서트1   경제흐름으로 본 미술사강연 : 그림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 박희숙 서양화가
15:25-17:15	경제대토론   글로벌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경제의 재탄생 주제발표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패널토의 : 유장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Moderator : 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17:30-19:00	세대공감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 이은 리더들과의 브릿지 대담 그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의원 원장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공지영 작가
18:30-	개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지식경영에서 지혜경영으로! CEO 지혜의 바다에서 나를 만나다

꿈과 희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CEO 최고의 지혜여행



## 3일차 프로그램 | 7월 30일 금요일

일 정	프로그램
	굿모닝 여행 : 제주올레 외 인경희 회장배 골프대회 / 점심식사 (골프 관광 포함)
14:20-15:10	인문학콘서트2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러지 : 생각이 기술이 되다 박태현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15:25-17:15	경영혁신대토론   혁신기업 3인방에게 듣는다 표현명 KT 사장 : 빛의 속도로 달리는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진화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 : 멋진 실패에 상을, 평범한 성공에 벌을!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 : Do better tomorrow! Moderator : 권영설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 원장
17:30-19:00	리더십대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Moderator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9:00-19:40	저녁식사
19:40-21:00	문화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감성콘서트 & 와인파티

일정 : 2010년 7월 28일(수)-7월 31일(토) 3박 4일

장소 : 제주 롯데호텔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한국경제/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참가대상 : 기업/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300명

## 4일차 프로그램 | 7월 31일 토요일

일 정	프로그램
08:00-09:0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09:00-10:20	[FAMILY WORKSHOP]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나는 지금부터 행복을 선택한다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10:35-11:35	[종합강연] 함께 가는 길 / 정준양 포스코 회장
11:35-12:00	골프대회 시상식 종합강평 / 폐회인사
12:00-13:00	제주공항-김포공항 이동

본 프로그램은 섭외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

# 2010년도 제2회 'JDC 글로벌아카데미'

윤생진 창조경영연구소 대표 / 전 금호인재개발원 원장 **3월 12일 (금)**

2008년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와 본원이 개설한 'JDC 글로벌아카데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필수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는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 등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명품아카데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주시에서 열린 제2회 아카데미에서 “작은 아이디어가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윤생진 대표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우리나라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제주도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다닌다. 하지만 제주도는 옛날의 고정관념과 토속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 Why?에서 시작한 역발상

나는 고등학교를 친구들이 입학한 다음해에 들어갔고,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두 내 능력으로 마쳤다. 30여 년 전 우리 회사에 3억 원 짜리 기계 240대가 있었는데 모두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 나면 한국에서는 기술자가 없어서 일본에서 데려와야 했다. 그러나 일본 기술진들은 기계만 고치고 갈 뿐 절대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다. 결국 기계고장이 잦을수록 공장 가동률은 떨어졌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제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근로자들을 쥐어짜고 임금을 깎아도 일본을 이길 수 없었다.

그 때 생각한 것이 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졸업자들을 이기려면 그들이 하지 못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역발상이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하지 않은 것도 해보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평소 '왜'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발명을 많이 했다. 음악이 나오는 칫솔, 오뎅이 다리미, 자동 때밀이, 소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변기 등이 내가 발명한 제품들이다.

음악이 나오는 칫솔은 이를 닦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세계 최초로 칫솔에 칩을 넣어 음악을 담았다. 그러나 망했다. 칫솔을 한 번만 쓰면 고장이 났는데, 반도체는 습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20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

오뎅이 다리미는 다림질 할 때 손목이 아프다는 아내를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다리미 뒤에 추를 달아서 그냥 뒤도 다리미가 서도록 만들었다. 이 제품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국제박람회 출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네덜란드에서 스팀다리미가 출시하면서 실패했다.

자동 때밀이의 경우는 목욕탕에서 복부비만인 사람들이 자기 다리를 못 닦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우리나라 복부비만 인구가 수백만 명은 될 거란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해 개발한 제품이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면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사람들이 사라져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사지 않았다.

소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변기는 물을 재사용하지는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이다. 깨끗한 물만 쓰지 말고 세면하고 남은 물을 변기에 담았다가 버튼을 누르면 소변과 대변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재활용 물을 먼저 흘려보낸 뒤 수도물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이 아이디어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극찬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모두가 성공한 제품은 아니지만 세상은 나처럼 엉뚱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는 남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미리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신비의 섬으로 탈바꿈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고가 되려면 그 분야에 미쳐야

우리나라에서 상장과 훈장, 감사패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나일 것이다. 금호타이어에 가면 '윤생진의 정신을 따르자'는 기념비와 기념식수가 있다. 일개 사원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우리나라 우리 회사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훈장 2회, 대통령상 5회, 회장 표창 3회, 사장 표창 52회 등을 받



았다. 하루에 대통령상 두 개를 받기도 했다. 그러는 과정에 공장 대리에서 과장을 건너뛰고 그룹 회장부속실 차장으로 기용되었다. 보통 승진하는데 4년이 걸리지만 2년 만의 고속승진이었다. 차장에서 부장 진급도 2년 만에 했고, 부장에서 상무 진급도 2년 만에 이사를 건너뛰고 진급했다. 2년 과정의 서울대 MBA 과정은 6개월 만에 1등으로 마쳤다. 내 자랑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미쳐야 한다. 그럼으로써 행복도 느낄 수 있다. 사랑도 미치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식구들을 도와줄 사람이 평생에 꼭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제주의 혁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농업혁명시대보다 산업혁명시대가 더 컸고, 그보다 정보혁명시대가 더욱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에너지혁명시대이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에너지 혁명에 앞서는 도시가 가장 잘 살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에너지혁명에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우리나라 3대 수출 품인데, 총 수출액이 1,110억 달러이다. 그런데 에너지 수입은 1,415억 달러이다. 결국 우리는 죽어라 수출해서 원유를 공급하는 미국이나 중동만 좋을 일을 시켜주는 꼴이다. 제주도는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야 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밀을 99.7% 수입하는데, 만약 밀 수입이 중단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면 쌀은 남아돌아서 처치곤란이다. 이러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농촌의 인구감소도 심각한 문제다. 전남의 경우 1년에 한 개 군 단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오지 않고, 젊은 남성들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요즘 연구 중인 아이디어는 1분 내에 열이 520도까지 올라가는 발열 특수유리다. 이것을 이용해 세계 최대의 의료단지 및 세계 최대의 유리온실단지를 만들어서 관광도 하고 과학영농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유리온실단지에서는 대체에너지 작물 재배뿐 아니라 향수원료, 화장품원료, 화훼, 바이오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전라도이고, 그보다 좋은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다. 전 세계 향수원료 시장이 30조, 화훼시장이 7조, 화장품원료시장이 23조, 바이오에너지시장이 100조 이상이다. 감귤 생산으로 인한 소득 6,00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전기를 써야 하는데, 문제는 이산화탄소이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한전의 전기를 쓰지 않는 '탄소 제로호텔'을 만드는 것이다. 유리온실단지에서 나오는 태양열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호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가 65억이다. 그 중 우리나라를 5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0%이고,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9%이다. 중국에서만 1년에 신희부부가 1,200만 쌍이다. 만약 제주도에 이런 호텔이 들어서서 중국 신희부부의 절반만 오게 만들어도 현재 600만 관광객 수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클 것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사무처장은 “당신의 기술력에 많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것을 실행해 내기 위해 당신과 일하기를 고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그러한 변화 속에서 세상을 긴장시킬만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신도시를 건설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





**제 4 회 찾아가는 CEO교실**

# 自由와 眞理를 향한 無名의 獻身, 국가정보원



본원은 지난 4월 23일, 국가정보원 김주성 실장의 특별 초청으로 회원 40명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방문하는 '제4회 찾아가는 CEO교실' 행사를 가졌다. 찾아가는 CEO교실은 회원들에게 '달리는 공부방'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생생한 현장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 또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편집자 주

지난 4월 23일 오전, 양재역을 출발한 40명의 회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인간개발연구원을 환영하는 문구가 담긴 LED전광판이었다. 회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안보정세 브리핑을 들으며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이후, 일행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국정원의 역사, 활동 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멀티미디어 전시관인 안보전시관으로 이동했다. 친절할 도우미의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는 관람 내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흥미를 유지할 수 있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테러정보통합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본부사격장을 방문하였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테러예방정보 수집과 대응 활동을 철저히 수행한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사이버공간을 수호한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 24시간 체제 등을 갖춘 국정원에 의해 우리국민은 안전하게 24시간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본부사격장에서는 사격관의 시범과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권총사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찬 시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의 뜻을 직접 들으며 조직원의 공감과 참여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김주성 실장의 경영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정원의 밝은 미래가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정원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국정원 앞뜰의 기념비석에 새겨진 전각이 본원 회원인 손경식 한국서화원로연합회 회장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김주성 실장 및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KPM



## 막걸리의 힘

글 · 정목일 수필가,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고급 술, 건강 술로 국내 시장을 장악했던 와인이 막걸리에 밀려 휘청거리고 있다. 막걸리 판매량이 늘어나고 수출도 잘 된다는 소식이다. 막걸리가 힘을 내고 있다.

한국의 뚝심과 신명은 막걸리로부터 나온다. 막걸리 맛을 알아야, 막걸리에 취해 보아야 한국의 마음을 안다. 유백색 그 텁텁하고 시원한 술에 얼큰히 취해 보아야 삶의 맛을 안다.

막걸리는 고두밥에다 잘 뜯 누룩을 물과 함께 버무려 술독에 넣은 다음, 온돌방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주고 발효를 시켜 익혀낸 술! 술독에서 부글부글 저절로 끓어올라 깊어진 맛! 한국인의 삶에 힘을 돋워주는 술이다. 한국인의 신명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는 막걸리! 하얀 사기대 접에 주전자로 부어 마시면, 목줄을 타고 꿀떡꿀떡 넘어가는 술! 중국의 백알 잔, 일본의 정종 잔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막걸리 잔은 대범하고 순박하다. 몇 순배 마시면 배가 차오른다.

서양의 포도주, 위스키 등이 섬세한 맛으로 감성을 자극한다면, 막걸리는 투박하고 시원 텁텁한 맛으로 흥취를 일으킨다. 한식을 들 때는 양주보다 막걸리가 제격이다. 하늘 속으로 굽이치는 한국의 산 능선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의 곡선을 바라보려면 막걸리를 마셔야 제 맛이 난다. 피리 소리를 듣거나 장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려면 막걸리에 취해야 한다. 달빛에 취할 때, 농악에 취할 때, 판소리에 취할 때는 막걸리를 한 잔 해야 한다. 한국의 멋과 맛과 신명은 막걸리가 내는 흥이요, 꽃이다.

막걸리는 농부들이 들판에서 김매고 밭갈이 하다가 허기가 들거나 기운이 빠질 때 들이키는 술이다. 논밭에 두엄을 내다 한 사발 들이키는 술! 기분을 새롭게 하고, 힘을 돋우는 자양분이다. 술을 보면 민족의 마음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막걸리는 서양처럼 대단위 제조처에서 상품으로 개발되어 온 게 아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집집마다 담았던 술이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마시기 위한 술이었기에 재료가 순수하고 맛을 돋우기 위해 잔피를 부릴 이유가 없었다. 막걸리는 한국의 물맛이요, 자연의 맛이다. 한국은 국토의 2/3가 산으로 돼있는 산의 나라이다. 깨끗하고 맑은 물맛이 막걸리의 바탕이다. 한국의 들판에서 농사지은 쌀 맛이 막걸리의 밑천이다. 큰 사발로 벌컥벌컥 들이켜도 탈이 생기지 않는 막걸리! 육체적 정신적인 허기를 메우며 신바람과 뚝심을 불어넣는 막걸리의 힘!

한국인의 친화력과 단합은 막걸리에서 나온다. 막걸리 한 사발로 “얼싸 좋다!” 추임새를 넣으며 덩실덩실 춤추는 한국인들! 온갖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고 어깨춤을 추고 “꽤지나 칭칭나네”로 신명의 극치와 희열을 맛보게 하는 우리의 술! 한국인에게 막걸리는 무엇인가.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요, 막힘에 대한 소통이며, 억눌림에 대한 해방이다.

막걸리 안주로는 배추김치 한 사발, 나물 한 접시만으로도 족하다. 권하는 사발에 엄지손가락이 술 속에 빠졌다 하여 내색하지 않는다. 정다운 눈길로 술잔을 주고받는다. 막걸리는 조상에 게 제사 지내고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기 위한 술이다. 돈 벌기 위한 상술과 수단을 부릴 이유가 없기에 순수한 건강주인 것이다.

막걸리가 세계로 수출되고 호응을 받으려면 우리는 막걸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줘야 한다. 막걸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순수와 자연의 맛으로 전통의 술맛을 살려나가려면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포장, 마케팅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하며 환경보전으로 물과 공기가 깨끗하고 청정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술은 민족문화의 속살을 보여준다. 순박하고 진솔하며 후덕한 막걸리! 막걸리의 힘은 순수의 힘이요, 민족 공동체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정목일**

# Membership



## 회원추천 캠페인

### 성공한 리더의 휴먼 네트워킹과 평생학습을 나누세요!

각계 리더들의 평생학습을 도모하며 지식·정보·친교의 장으로 매주 목요일, 35년간 한결 같이 자리를 지켜온 인간개발연구원은 각계 저명한 사들의 생생한 지식과 경영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경영자들과 교류하며 비즈니스 정보를 나누는 진정한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입니다.

특별히 창립35주년을 맞아 인간개발연구원의 미디어파트너 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프리미엄 교육 사이트 HiCEO와 새로이 융합된 회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HiCEO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컴퓨터 속 비즈니스 스쿨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경제, 경영, 리더십, 금융, 문화, 트렌드, 교양 등 7개 채널과 90여 개 코너로 리더에게 필요한 총체적 지식학습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인간개발연구원은 진정한 지혜의 저장소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를 실천하기 위한 35년간의 꾸준한 노력에 회원 가입 및 추천 또는 다양한 재능기부(강연, 컨설팅 등)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 < 35주년 특별 이벤트 >

- ▶ 서비스내용 : 인간개발연구원과 한경 HiCEO 정회원 자격
- ▶ 이벤트기간 : 2010년 5월 1일 ~ 2011년 4월 30일
- ▶ 회원가입비 : 개인회원(1인) 120만원 / 기업회원(5인) 450만원
- ▶ 상세가입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과장 (070-7500-9508)

### ★한경 HiCEO 회원가입 :

1년 50만원 / 문의 한경아카데미 이주영 팀장 02-360-4041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가입안내

### ●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 회원서비스 안내

####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 웹진)
- KHD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정치·경제·경영·사회·문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경영지식을 제공하는 연구모임(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휴양지에서 경영자·가족·초청강사가 함께 학습을 통하여 경영정보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교의 장
- 회원커뮤니티 활동
  -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 골프클럽 (인경회)
  - 차세대 경영자들의 모임 (Yong ceo forum)
  - 중국의 역사, 경제, 정치, 문화 학습모임 (차이나클럽)
  - 회원들의 책글쓰기를 돕는 모임 (책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료 유료 참석(저자와의 특별한 만남)
- 국·내외 시찰 Program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 회원친선행사 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지방자치 팸투어, 공연단체 관람, 송년파티 등
- 정기 간행물 제공 (격월간 좋은사람 좋은세상)
- 기업 교육컨설팅 임직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기획, 명사섭외, 기업홍보 협조 외

### ● 연회비안내

특별법인	500만원
법인회원	300만원
세미나회원	240만원
개인회원	100만원
오디오회원	52만원
후원회원	후원금 300만원이상 법인회원 예우
나눔회원	강연, 재능 기부 시 개인회원 예우



단어만 외문다고 영어회화가 될까요?  
오토커로 최단기간 단어암기는 기본!  
한달이면 영어회화까지 OK!

# 영어독립오토커

말 못하는 단어암기,  
영어리얼어는 가라!  
자동으로 말이 되는  
오토커로 오라!

newedu.co.kr autalker.net

2010년 5월



## 인간개발연구원과 영어학습기 최강자 오토커, 100만 글로벌리더 양성하여 대한민국 영어독립 선언!

21세기는 영토강국이 아니라 영어강국이 진짜 강국!

21세기는 IT, BT, NT를 넘어 인간  
의 시대로 PT(People Technology)  
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1세기 글  
로블리더 양성에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다언어, 특히 영어구사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만기)과 ㈜뉴월드영상에듀-  
오토커(대표이사 홍동희)는 인재육성  
의 시대적 과제를 품착하고 백만 인재를  
선발, 지원하여 한국의 미래를 책임  
질 글로벌리더로 키우겠다고 밝혔  
다. 오토커는 자동번역, 자동기억, 저절  
로 말이 되는 원리라 말하기, 듣기 같

은 회화에 강하다. 교과부가 2010년  
정책보고에서 밝혔듯 앞으로의 수능  
은 듣기, 말하기 등 회화중심으로 바  
뀐다. 즉 문법, 독해 중심의 핵심머리  
영어가 아니라 정말 영어가 되는 오토  
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특히 올해  
는 삼일절 90주년을 넘기는 뜻깊은  
시점이라 지금까지  
의 잘못된 영어교  
육과 과도한 사교  
육비로부터의 독립  
선언은 더욱 큰 결  
단으로 여겨진다.



정만기 회장

## 교과부, 초중고·대입수능영어를 듣기, 말하기, 회화중심으로 대폭 교체!

단어암기는 기본 회화까지 강한 오토커로 신학기 학생,  
학부모 관심 및 문의 폭증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대학  
수능에서는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나고, 초중고교의  
영어수업도 회화중심으로 강화된다.

또한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수업  
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  
다. 중학교에서도 영어수업 가운데 주  
당 1시간 이상은 회화수업을 하고, 수  
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한다.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영어수업시간도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가 현재 17문항(34%)  
에서 2014학년도부터 25문항(50%)  
으로 늘어난다.

이는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문법,  
독해 위주에서 듣기, 말하기 위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각 가정과 학교마다  
오토커 열풍이 불고 있다. 자동번역,  
자동기억, 저절로 말이 되는 원리라  
특히 회화에 강한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오토커는 교과부 인증 벤처기  
술연구소의 특허기술로 제작되어 이번  
교과부의 영어교육방심에도 잘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오토커가 공급설치된 전국의  
학교들이며 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학생, 직장인들  
영어 스트레스에서 해방!
- 학부모 과도한  
영어사교육비에서 해방!
- 원어민강사, 해외연수 등  
외화낭비 해방!
- 불법유학, 기러기야빠 등  
사회문제 해방!

- 센텀초, 월내초, 연동초, 학사초,  
재송초, 해강중, 중앙여중, 부산  
카톨릭대, 보성남초, 남호초, 서산  
초, 남신초, 풍신초, 강남초, 용상  
초, 외통초, 풍서초, 영남초, 서후  
초, 임하초, 신성초, 백원초, 영오  
초, 개천초, 상리초, 장충중, 보라  
매초, 오산초, 문학초, 양보초,  
성남중, 송촌초, 신평초 . . .

## 대한민국의 영어병어리! 오토커가 해결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영어학습기입니다  
자동으로 반복되고, 자동으로 기억되어, 저절로 말이 됩니다

- 학원, 과외에도 안되고, 기초없고, 단어암기 힘든 학생
- 특목고준비생, 수능고득점, 토익만점 원하시는 분
- 해외여행, 출장, 이민준비, 급하게 회화 필요하신 분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영어교육이 필요한 각종 교육기관
- SSAT(미국사립고교 입학시험) 특목고준비생 최적과정, SAT(미국대학입학 자격시험) 수능난점 및 미국유학 최적과정
- 아메리카 생활영어 (상황별 영어회화 할리우드 현지 문구케 촬영) · Live공연 동영상방송 (중급계 답송인 공부해도 영어회화 술술~)
- 영한, 한영, 영영, 일한, 한일, 중한, 일본어, 국어, 한자왕기 등 총 120만 단어, 육상말을 지원
- 언어교육의 특과사전 (중학필수 1200단어, 고등필수 1600단어) · 문장반복, 구절반복 영어학습 (유치, 초, 중, 고, 성인)
- 비즈니스영어, 여행회화, 일상회화, 토익 등 상황별 다양한 회화 흥미라 지원



문가학을 위한 가정용 오토커

2010년  
최신형



직장인을 위한 휴대용 오토커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등 전과정 - 단계별, 수준별,  
최고 퀄리티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기초부터 Free Talking까지 피닉스, 단어,  
속어, 문장, 연음 원리, L/C, 영어회화,  
영어중요, 초등학교 교과서, 초중고 단어/  
문법, 회화, SSAT, SAT, 입문, Speaking,  
TOEIC 전과정 집대성

- 4.3 Inch Wide - 9.4cm 바로 전용하는  
초급 34만 5천여문
- OMS - KBS, SBS, MBC방송의 등 100% 재생가능
- Portable - 휴대하기 간편해서 언제든 쓰세요~
- 차기방송교과서와 OMS 3종교과서
- 보다 생생한 내아라! 스피커
- 내리 동영상 기능, MP3를 사전 등사해 이동가능,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 FM/CI2 주파수 Auto Scan FM방송수용가능



150-9001-2000  
문의전화 24시간 24시간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선봉자 상 / 해외의 혁신 기업상 대상 /  
O-NET(영어능력시험) 대상 / Tolly Awards 최고 권위 교육 브랜드 대상 /  
Aurea Awards 연중상, 교육상 수상 대상

전국지사 개설문의 **1599-8205** 구입 및 문의 전화 **1599-0405** Autalker



느리게 걸으면 제주가 보입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여유로운 휴식  
 그 곁에 항상 롯데호텔제주가 있습니다



**Joyful Life 패키지**  
 기간 4/1~5/31  
 가격 28만원~37만원



**올레오름 패키지**  
 기간 4/1~5/31  
 가격 28만원~37만원



**키즈월드 패키지**  
 기간 4/1~5/31  
 가격 29만원~38만원



**孝心 패키지**  
 기간 5/1~5/31  
 가격 39만원~45만원

**롯데호텔제주 개관 10주년 기념 SPECIAL EVENT**

EVENT 1

**1억원을 잡아라**

하나, 보물찾기 야외장원에 숨겨진 순금과 로얄 스위트 숙박권을 찾아라  
 대상 5/7(금), 5/21(금) 투숙객  
 돌, Lucky Draw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랗하게 전해지는 행운의 선물!  
 대상 5월 패키지 이용 고객 및 식음업장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  
 ✓ 보물찾기와 Lucky Draw 경품  
 금 총50돈, 로얄 및 프레지덴셜 스위트 숙박권, 객실숙박권, 뷔페식사권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lottehoteljeju.com](http://www.lottehoteljeju.com)

EVENT 2



**화산분수쇼와 함께하는 불꽃축제**

제주의 밤하늘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과 폭죽의 향연  
 일시 5/15(토)

EVENT 3



**Festival's 하이лай트 공연**

트로트퀸 정윤정 과 함께하는 특선 뷔페  
 일시 5/22(토) 저녁 7시 장소 크리스탈볼룸  
 가격 성인 R석 8만원, S석 7만원, 소인 5만원 (복합뷔페 포함)

**G plus 트레비 클럽 출시**

**호텔 & 골프 프리미엄급 멤버십**

프리미엄특전

**호텔 특전** 롯데호텔제주 무료숙박권 1매, 50%할인권 4매, 체인호텔 주말 50%할인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및 최대 33%할인 등  
**골프 특전** 롯데스카이힐 제주CC, 그린피 무료권 5매, 주중 50%할인권 10매, 주말 30%할인권 3매, 인종그린피 30~20% 할인, 클럽하우스 식음 10%할인 등  
**연회비** ₩600,000 (V.A.T.포함)  
**가입문의** 02.317.7231~3



# 공기 중의 바이러스 걱정 웅진 케어스 이기에 안심입니다

케어스만의 특수 항바이러스 필터 장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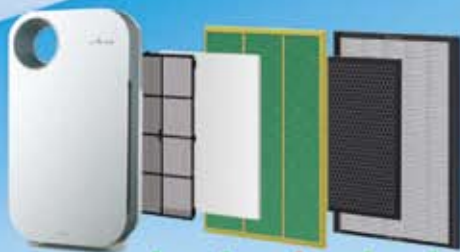
케어스 공기청정기만의 특수 항바이러스 필터는  
공기 중의 유해 바이러스를 걸러주어  
건강한 실내 공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공기도 씻자!

깨끗한 숨  
**CAIRS**  
공기청정기



- NEW**
- AP-1008DH
  - AP-1008BH
  - AP-1008CH



step1 프리 필터    step2 헤파 필터    step3 항바이러스 필터    step4 활성탄 필터    step5 헤파 필터



충남대 독감 바이러스  
연구소 서상희 교수  
연구팀 실험결과

[웅진코웨이(주) 케어스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필터 시험확인서]

**유해 바이러스 제거 능력 인정!**

“케어스 항바이러스 필터는 실험결과 **바이러스 제거의 강력한 성능**을 인정 받았습니다.”

제품 렌탈 및 구입문의: 1588-5100 / [www.coway.co.kr](http://www.coway.co.kr)

\*본 제품은 공기정화기로서 질병치료를 위한 의의기기가 아닙니다.